IBK기업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5150호(2022.09.30) 유효기간 : 2023.09.29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여성시대

양희은·서경석입니다

11 | 2022 November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화성송산지점 거래고객
㈜성화에스티 이경섭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서초동지점 거래고객
연세오케이병원 한희돈 대표

IBK기업은행

연말정산 좀 더 받을 수 없나?
"노후자금"은 언제 다 모으지?
근데 수수료 꼭 내야 되나?

「이 많은 질문에 단 하나의 답」
IBK기업은행 IRP!

연 최대 115만 5천원 세액공제,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무료!
세액공제와 수수료 걱정을 한 방에
IBK기업은행 IRP

[i-ONE 뱅크]
IRP 가입하기

수수료 무료
i-ONE Bank 앱에서 가입 시 퇴직연금 수수료 무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7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로 최대 115만 5천원까지 절세 가능

노후자금 마련
개인 맞춤 포트폴리오 설정으로 안정적으로 노후자금 마련 가능

디폴트 옵션 도입
DC/IRP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을 시 사전 지정 방법으로 퇴직연금 운용

비대면(i-ONE Bank, 인터넷뱅킹)을 통한 IRP 가입 시 운용 · 자산관리수수료에 한함(단, 펀드 보수 별도 발생가능)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4236호(2022.08.19) [유효기간 : 2023.08.18]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contents 2022년 11월호







04 **여성시대 특집**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

12 **이달의 편지**
'병아리 나이팅게일!'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성화에스티 이경섭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연세오케이병원 한희돈 대표

80 **코너 속 편지**
'파란만장 해군 생활' 외

109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깊어가는 가을

112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2년 11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박혜화, 김무녕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Heyhoney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언제 어디서나 전화주세요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

얼굴 보고 하지 못한 말,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말,
이제 시원하게 전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고백, 칭찬, 부탁, 사과,
그 어떤 말도 좋습니다.
여성시대 가족들에게 있었던 사소한 일, 특별한 일,
좋은 일, 힘든 일, 모두 모두 전해주세요.
참여번호는 02-789-1004, 02-789-천사번입니다.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 24시간 열려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 0928(수)_열린 사서함

저는 이 코너를 매일 오전 아파트 뒷동산에서 운동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해발 100미터도 채 안 되는 뒷동산에 마음이 아름다운 분이 계셔서 소문을 내고 싶어 우리 여성시대에 말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오전 9시경 산에 올라가는데 미담의 주인공은 새벽에 다녀가신다고 합니다. 얼굴은 뵐 수가 없는데 흔적은 너무도 뚜렷합니다. 산 둘레 길을 깨끗하게 비로 쓸어 놓으셨고 장마철엔 혹 빗물이 고여 걷는 사람들이 불편할까 다칠까 물기를 삽으로 파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맨발로 산길을 걷는 분들도 많은데 날카로운 돌들도 다 제거하신 흔적에 가슴 뭉클했습니다. 새벽에 다녀가신다는 이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최명자]**

☎ 0929(목)_열린 사서함

이쁘고 착한 우리 두 딸. 아빠가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알지.

두 딸 모두 직장생활을 하다가 네일아트 한다기에 엄마 아빠 두 딸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 왜냐하면 우리 두 딸 믿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엄마 아빠랑 상의해준 게 참 고마웠어. 쉬운 일이 아닌 데 가게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알아보고 가게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두 딸 스스로 인테리어까지 직접 했잖아.

엄마 아빠 도움 없이 둘이서 해나가는 거 보면서 흐뭇하기도 하고 찡하기도 했어. 두 딸이 원하는 거니까 거기에 진심으로 대하고 정성을 다해주면 되지 않을까.

힘들고 지치면 항상 엄마 아빠가 너희 뒤에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고 생각해. 우리 두 딸 항상 밝게 당당하게 파이팅이야. '네일 네브' 파이팅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여성시대 감사합니다. **[애청자]**

☎ 1004(화)_열린 사서함

저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요. 큰아들은 33살, 작은아들은 31살이에요. 2020년에 작은아들이 먼저 결혼했고 올겨울에 큰아들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과 두 며느리가 우애 좋고 사이좋은 형제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린 사서함의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큰아들 상일아, 예비 신부 큰며느리 인희야, 작은아들 상균아, 작은 며느리 아영아. 엄마와 아빠가 너희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 너희 두 형제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우애 좋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상일이하고 인희는 12월 25일 결혼 정말 축하하고, 상균이랑 아영이는 예비 엄마 아빠 된 거 너무 축하해. 우리 호도 잘 키우자.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하고 고맙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이명희]**

☎ 1006(목)_열린 사서함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장모님 장 서방인데요.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장모님 전화인데 벌써 누가 해지를 한 모양이네요. 장모님 하늘나라 가신 지가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장모님 제가 일상생활에 파묻혀서 잊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죠. 맛있는 된장찌개는 우리 어디 가서 먹어야 되나요. 김치는 어디 가서 또 가져오죠. 작년에 장모님 딸, 제 집사람이 오십이 지나서 김치를 처음 담가봤습니다. 솔직히 정말 맛이 없었어요. 장모님 그 맛있는 아삭아삭한 김치는 이제 어디서 누구한테 가서 얻어 와야 하죠 이제.

장모님 보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여성시대에 용기를 내서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장모님~ 자꾸 눈물이 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제가 또 전화드릴게요. **[장상익]**

☎ 1003(월)_열린 사서함

저는 얼마 전 비브리오 패혈증이라는 병으로 어머니를 잃은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잃으면서 이 병의 무서움을 꼭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병은 어패류나 바다 생선을 생으로 먹고 걸리는 병입니다. 걸리면 죽을 확률이 50퍼센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간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우선 증상을 알려드리면 고열에 몸살 설사 구토 증상이 있으며 다리에 피멍 같은 소견이 보입니다. 다리가 부어오르고 피멍이 생기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피멍이 점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다리에 피멍 같은 것이 보이면 병원으로 바로 가서 패혈증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몇 시간 만에 악화되어 죽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부디 앞으로 이런 병으로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병으로 가족을 잃으신 모든 분께 애도를 표합니다. **[문영수]**

☎ 0922(목)_열린 사서함

아들 덕용이, 며느리 지은아, 손녀 윤아, 손자 윤우야.

너희들이 그곳으로 간 것이 벌써 육 개월이 되어 가는구나. 너희들 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서운함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서로 보지 말자고 했지.

비행기로 열네 시간, 그 먼 곳에서 난생처음 만나는 낯선 땅, 낯선 사람, 날씨 모든 것이 힘들었지. 그때만 생각하면 엄마 아버지는 눈물이 난다.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씩 잘 적응하여 아이들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니 너희들이 참 용감하다는 생각이 든다.

영상 통화로 얼굴을 자주 보지만 아이들도 직접 안아보고 싶구나. 너희 가족 항상 건강하고 용감하게 잘 지내라. 우리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자.

- 부산에서 할아버지가. **[심영현]**

☎ 0921(수)_열린 사서함

친구야 사과 보내줘서 잘 받았다. 해마다 이렇게 보내줘서 너무 잘 먹어. 강원도 사과 진짜 맛있구나. 올해는 추석이 너무 빨라서 과일을 못 팔았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그렇게 못 팔았다니 하니 안타까워요. 모임 회장님에게도 얘기해서 나도 조금 힘써볼게.

강원도 사과 이제 조금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잘 될 거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엄정옥 사장님 힘내세요. 강원도 사과 많이 애용해 주세요. 맛있어요. **[애청자]**

☎ 1005(목)_열린 사서함

열린 사서함 많이 보내주세요

여성시대 당당이 여러분, 긴급 뉴스입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2021년 10월 5일, 한 청년이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 *안녕하세요. 여성시대에 새로 들어온 박신유 PD입니다. 미처 못했던 말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 모두 사서함에 훌훌 털어버리시고 푸짐한 천하장사 세트로 바꿔가세요. 어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엄청 좋던데 많이많이 보내주세요.*



감히 천하장사 세트를 탐하며 열린 사서함 참여를 독려하던 그 청년, 박신유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많이많이 축하해주세요.

아, 그런데 너는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신유 회사 동기 김무녕입니다. '문영' 아니고요.

없을 무 할 때 '무'에, 안녕할 때 '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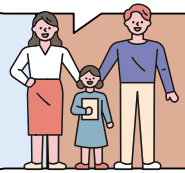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당당이 여러분 사서함 많이많이 보내주세요!

[김무녕]

〈내 사랑을 위한 요리〉

[4230] 김밥을 좋아하는 남편이 치과 치료 중이라 딱딱한 걸 못 먹어서 단무지를 잘게 채 썰어 김밥을 싸줬어요. 딸이 그걸 보고 "엄마가 아빠를 정말 사랑하나 보네" 하더라고요.





[이미라] 신혼 초에 오리탕 도전했었어요. 남편이 잘 먹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서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사실 오리탕인지 오리 한 강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그때 제가 너무 예뻤대요.

[이재한] 저는, 아버지께서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셔서 결혼 전에 한 번도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아내에게 처음 해준 것은 토스트! 식빵을 토스터에 넣어 굽고 잼 발라 주었어요.

[이영현] 제가 맨 처음 아내를 위해 해준 요리는 고등어조림이었습니다. 입덧 때문에 반찬을 못 하던 아내가 고등어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해줬더니 '맵다~ 짜다~ 왜 이리 간이 안 맞냐~' 하며 투정. 그래도 밥 한 공기 뚝딱 비우더라고요.

[이선구] 아내를 위해 처음 해준 미역국. 결혼하고 맞는 첫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였는데 마른미역 얼마 안 되는 거 같았는데 끓여도 끓여도 물이 적어 큰 냄비에 옮기고 또 옮겨 끓였어요. 그때야 미역 봉투를 읽어 보니 15인분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첫 생일 미역국으로 잔치했습니다.



[9097] 남편이 저에게 처음 해준 음식은 아플 때 끓여준 그냥 하얀 죽이었어요. 그거 한 그릇 끓이는데 냄비 위로 얼마나 끓어 넘치던지 국물이 다 가스레인지 위로 넘쳤더라고요. 나중에 가스레인지 청소하는데 혈압이 올라 다시 누울 뻔했어요.

[6285] 저는 결혼하고 신랑이 팥칼국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친정엄마한테 물어봐 가면서 3시간 걸쳐서 팥을 삶고 반죽도 직접 제가 다 밀어서 썰어서 했어요. 신랑이 '최고의 맛'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주말에 한 번씩 해준답니다. 특히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화요일 '사랑탐구생활' 시간에 도착한 문자입니다.



12 병아리 나이팅게일!
15 도보 라이더 재희 씨
20 동백맘들의 힘
23 탁구장이 다시 문을 열어
25 행복한 소풍
28 아버지와의 이별 준비
32 수학의 쓸모
37 나의 히어로
41 1일 아르바이트
45 엄마의 사랑방에 다녀와서
48 제게 힘을 주소서
50 아내를 위해 만든 김밥
53 자전거의 맛
55 봉투 속의 월급
57 인생 대학 여성시대
60 10년 만기 적금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병아리 나이팅게일!

이도아 |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저는 올해 2월 늦깎이 대학생 생활을 마치고 3월부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고 있는 33세의 6개월 차 신규 간호사입니다.

매일 청취자 입장에서 듣기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제 시름을 한 번 풀어보고자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나이팅게일을 꿈꾸며 병원에 왔으나 저는 나이팅게일은커녕 그냥 나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뼈가 다 드러난 환자의 욕창을 볼 때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그 특유의 냄새와 모습에 속이 몹시도 울렁거리기도 했고요. 매일 아침 환자 혈압, 체온 등을 체크하며 대화를 나누던 환자가 돌연 사망했을 때는 싱숭생숭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삶의 허무에 대하여 또 오늘이 삶의 마지막이었을 그에게 한

번 더 살갑게 다가가지 못한 제 태도에 대하여 눈물이 나기도 했고요.

어디 그뿐일까요. 보호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용변을 본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려다가 제 손에 묻었을 때도, 섬망이 있는 환자를 돌보다가 그의 팔꿈치가 제 얼굴을 가격했을 때도, 또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소리를 지르던 환자를 진정시키다가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욕을 들었을 때도. 모두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신은 나약한 저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했고 예상치 못한 숱한 상황 속에서 알지 못할 감정들을 이겨내야 하는 건 오롯이 신규 간호사인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퇴사를 하지 않았어요. 동기들 절반 이상이 사직을 한 지금에도 병원에 다니죠.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 보람찬 순간도 괴로운 순간만큼이나 많기 때문이에요. 물 한 모금 먹기 바쁜 일과에서도 저를 향해 작은 초콜릿 하나를 수줍게 내밀어 마음을 담아내는 환자를 볼 때, 퇴원 날에 일부러 스테이션에 있는 저를 찾아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마디를 건네며 웃는 환자를 볼 때, 처음엔 마음을 내어주지 않던 사람들이 점차 저와 눈을 맞추고 내게 대꾸해주고, 저를 간호사로서 인정해주며 마음 한켠을 내어줄 때 저는 참으로 제 삶이 보람되다 느끼곤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진심을 다하고자 노력 중이에요. 그리하여 저는 오늘도 이 길에 여전히 서 있고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꼭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때로 잔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저는 저대로 제 간호를 받는 이들을 위하여 진심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만이겠지요. 저의 안녕이 곧 그들의 안녕이길 바라고, 그들의 안녕이 곧 제 안녕이길 바라며 함께 걷고 또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여성시대 희은 이모와 경석 삼촌이 제 행보를 좀 응원해주세요. 두 분이 프로페셔널하게 오래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처럼 저 또한 씩씩하게 굳건하게 고된 간호사의 길을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요. 그리고 두 분 진행자와 여성시대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며 느낀 건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꼭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Letter 02

도보 라이더 재희 씨

김연주 |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인데 엄마 얘기를 하려고요.

엄마의 하루는 새벽 다섯 시에 시작됩니다. 일찍 출근하는 아빠 아침상 차려드리고 6시 30분이 되면 걸어서 5분 거리인 언니네 집으로 출근합니다. 엄마가 도착하면 형부와 언니가 출근하고 조카 밥 먹이고 옷 입혀 어린이집으로 보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하는데 그때 여성시대가 엄마의 집안일 메이트입니다. 조카가 어린이집에 못 가는 경우에는 엄마가 조카를 돌보는데 덕분에 조카가 여성시대 로고송도 다 외웠어요.

엄마의 하루는 꽤 오랫동안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엄마의 하루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가 '도보 라이더' 모집 광고를 보고 오토바이 없이 배달하니 다이어트도 하고 커피값도 벌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 직장은 겸직을 허락하지 않아 아쉬워

서 가족 앞에서 그 얘길 꺼냈더니 엄마가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 보면 안 되냐? 나이 제한 없으면 내가 해봤으면 싶은데. 운동도 할 겸!"

그날부터 엄마와 저의 배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앱을 이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엄마가 혼자 익히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시작하는 날, 엄마와 저는 걸어서 10분 거리인 지하철역 4번 출구 앞 벤치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휴대폰에서 AI 목소리로 "주문"이라는 알림이 들리면 배달지 정보가 화면에 뜹니다. 그 소리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할까? 할까? 해?"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배달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할지 말지 망설이느라 '배차 요청'을 누르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갑자기 엄마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꼭 밥 좀 달라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같아. 그것도 더운밥 찬밥 따져가며…."

엄마는 숨이 넘어가도록 웃었습니다. 그때 다시 "주문!"하고 알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느라 기분 좋아진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 '배차 요청'을 눌러버렸죠.

"이 동네서 20년 살면서 여기 족발집 있는 줄은 첨 알았다."

무사히 첫 배달을 완료하고 '전달 완료' 버튼을 누르자 3,450원이라는 돈이 정산내역에 찍혔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좋아했습니다. 두 시간을 돌아 그날 번 돈은 6,350원이 전부였지만 엄마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있었습니다. 3주 넘게 주말 저녁마다 함께 배달 다녀

도 엄마는 배달 앱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실수도 생겼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주소를 착각하는 바람에 15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늘 초인종 누르기 전에 저에게 "저리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아는 사람 만나면 창피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날도 엄마가 저에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 해서 구석에 숨어 지켜보았는데 초인종을 누르자 주인이 나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은 잔뜩 짜증이 난 듯했습니다.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속 서성거리던데 집을 못 찾으신 거예요?"

엄마는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가 화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배달이 15분이나 늦었고 게다가 떡볶이였으니 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엄마에게 짜증 내는 걸 보니 제가 속이 상했어요.

"좀 늦을 수도 있지. 엄마, 이제 그만하자."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재밌는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그만하자. 그냥 아파트 단지 돌면서 운동이나 해."

"이런 일도 있어야 실수 안 하지.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지난주 토요일 점심,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사진 찍는 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지?"

"엄마 혼자 배달 나갔어?"

그날도 저녁에 함께 배달 나가기로 약속해둔 상태였습니다.

"응. 배달시킨 사람이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못 찾겠어."

주문자가 직접 받지 않고 문 앞에 두고 간 것을 사진으로 전송받기를 요청하면 앱 내에 있는 별도의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함께 배달 다닐 때 사진 버튼 위치를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작은 글씨라 엄마는 찾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른 겁니다. 지금 내가 가도 40분은 걸리는데 어쩌나 싶어 저도 불안해졌습니다.

"연주야, 잠깐 전화 끊어봐."

엄마와 전화를 끊고 택시라도 타고 가려고 옷을 챙겨 입는 데 다시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 왔고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엄마가 옆에서 미안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설명했고 그녀는 제가 시키는 대로 처리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주문한 젊은 엄마였고 엄마는 주문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배달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버튼 못 찾으면 전해주고도 허사잖아. 어휴, 근데 너무 좋은 엄마를 만났다."

"왜 혼자 했어. 같이 하자니까."

"나 혼자도 해봐야지. 어떻게 되든 혼자 한번 해보고 싶었어."

엄마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다. 이거 재밌다, 연주야."

엄마는 스스로 무언가를 배워 해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날 엄마는 배달 여섯 개를 성공시키고 무려 23,000보를 걸었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말고 운동 삼아 두세 개만 해. 응?"

"재밌다, 재밌어.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조카 돌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배달은 고작 주말 몇 시간 정도이고,



다음 주 정산 금액은 아마도 3만 원이 넘지 않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십만 원 남짓 돈을 벌게 됩니다.

"엄마, 한 달에 십만 원 정도?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글쎄. 우리 매달 10만 원씩 모아 여행 갈까? 여자들끼리만?"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는 60년생 올해 예순세 살. '누구 엄마'로 살아온 세월이 자신의 이름으로 산 세월을 넘어섰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살아온 엄마가 새로운 일을 하며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가시니 가슴 뭉클해집니다.

"엄마, 엄마도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배우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실컷 해보자. 언니와 나, 우리 두 딸이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자."

Letter 03

동백맘들의 힘

임혜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평촌로

저는 우리 동네에 산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쭉 살 것만 같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걸어서 다 돼요. 도서관도 공원도 산도 마트도 영화관도 대형병원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캄보디아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캄보디아에서 교육받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여러 교육도 해주고 특히 이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까지 시켜주는 너무나 멋진 학교였죠. 그 학교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하여 대뜸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학교에 뭐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픈 데 뭐 없을까요?"

선생님은 웃으면서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어머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들 소원이 마음껏 그려보는 거예요. 크레파스, 색연필, 물감 혹시 안 쓰는 것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런 소박한 소원이 있으셨구나. 냉큼 오케이를 했지요. 근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것 몇 개 보내자니 모자랄 듯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혼자 하기는 또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게요? 우리 마을에 너무 따뜻한 주민들께 부탁을 드렸죠.

〈친애하는 동백맘님들, 캄보디아에 꿈을 함께 보내지 않으시렵니까? 집에서 잠자는 미술용품들 많죠? 같이 마음을 모아 캄보디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요.〉

그랬더니요 난리가 났습니다. 차가 없어 택시 타고 물건을 가지고 오신 맘, 집을 샅샅이 뒤져서 엄청난 양의 학용품을 바리바리 싸 들고 오신 맘, 좋은 일에 아이와 함께하고 싶다고 아이 손을 잡고 오신 맘, 수고한다고 응원을 보내주신 맘. 3일 만에 이사 박스로 5개가 모였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가지고 와 주세요" 부탁해야 할 정도로 물품이 모였죠.

택배를 보내는 날 비가 와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정도쯤은 일도 아니죠. 꿈을 응원하는 택배는 청주로 보내졌고 거기서 배에 실려 한 달여 만에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행복해하며 그린 그림들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딱 보는데 가슴이 뭉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크레파스나 색연필이 사랑받는 선물은 아니잖아요. 버리기도 뭐하고 쓰지도 않아서 구석에 있던 천덕꾸러기 녀석들이 이리

대접 받고 귀하게 사용되다니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며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많이 벅찬 가슴을 동백맘들께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제가 뭉클하지요? 그림에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작은 거 보냈는데 제가 더 큰 선물을 받네요.〉 〈그날 일이 있어 참여 못했는데 또 해주실 거지요?〉 이렇게 같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도 택배비가 3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사실 가성비로 보자면 새것 사서 보내는 게 더 낫겠지요. 저희는 힘들게 모으지도 포장해서 보내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요? 집을 뒤져 안 쓰는 물건을 찾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쁘게 쓰이는 것을 보면서 엄마들이 행복했고 그 과정을 함께하는 아이들이 행복했고 결국 함께 사는 거란 걸 우리가 몸소 배웠잖아요. 그리고 각박해 보이는 요즘이지만 정은 살아있다는 것도요. 이 정도면 수지맞은 장사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캄보디아 아이들의 꿈이 여물기를 그 아이들이 멋지게 자라서 그 나라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되기를요.

희은 언니, 경석 오빠, 이 정도면 울 동네 용인의 동백맘들 자랑할 만하죠?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최고로 따뜻함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분들만 모이신 곳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하고 싶어요.

"동백맘님들, 덕분에 마음이 캄보디아에 전해졌습니다. 이리 정이 살아 있음을 몸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 일을 꾸리고 모으고 보내는 건 '불쏘시개'라고 함께하는 3명의 언니와 같이했어요. 언니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Letter 04

탁구장이 다시 문을 열어

남순향 | 충북 청주시 흥덕구

2020년 2월 코로나로 인해 애용하던 탁구장이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쉬는 시간 1시간을 이용해 짬짬이 탁구를 치러 다녔습니다. 회비를 1년 치 12만 원을 완불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일부 회원들은 6개월 치를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매일 40분씩 하던 탁구를 못 치고 집에 와서 잠을 잤습니다. 몸이 힘들 땐 그렇게 쉬는 것도 좋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매일 일만 하고 잠만 자니 체중이 조금씩 불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탁구 치면서는 하하 호호 매 순간 함박웃음을 터트렸다는데 그걸 못 하니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사는 게 즐겁지 않고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나 답답했습니다.

2년이란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지난 4월 12일 탁구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일하다가 쉬는 시간 1시간 동안 왕복 20

분을 걸어가서 5판 3승 두 게임을 재미나게 하고 다시 일하러 옵니다.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가 있는데 탁구 치고 오면 두통이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탁구가 건강에 너무 좋은 운동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에 세 번 휴무 때는 3~4시간씩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다 실수할 때마다 폭소를 터트립니다. 함께하는 멤버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탁구는 내 인생에 로또입니다. 힘든 식당 일을 하다가도 탁구 치는 순간을 생각하면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우리 탁구장에서 연중 큰 행사인 회장배 탁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한풀 꺾여서 많은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60명 인원이 찬조도 많이 하고 먹을거리도 푸짐하게 차려 놓고 4명씩 조를 짜서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딸 결혼식에 회원들이 화환과 축의금을 보내줘서 떡 한 말을 찬조했습니다.

오전 휴무를 내고 모처럼 동호인들과 게임을 했는데 우리 10조가 단합해서 게임을 무척 잘했습니다. 오후 다섯 시엔 출근해야 했는데 연장 게임까지 가서 어느덧 여섯 시가 되니 불안해졌고 게임이 잘 안 되었습니다. 결국 한 경기를 남겨놓고 출근해야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저 한 사람이 빠진 관계로 우리 팀은 2등을 했습니다. 상품으로 커피믹스 200개짜리 한 상자 받았습니다. 상품을 받아서 좋았고 게임을 많이 잘해서 뿌듯했습니다. 참가자 모두 기념품도 받고 맛있는 것도 배부르게 먹고 모처럼 행복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우울했던 시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2년 동안 웃지 못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 번 앓고 나니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회원들 모두 마스크 잘 착용하고 즐거운 탁구 운동 열심히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tter 05

행복한 소풍

이진영 |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지난 2월 시골에 사시는 아빠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희 엄마 임플란트 당장 해야겠다. 그런데 혼자 치과 가기도 엄두가 안 나고 돈도 걱정된다며 엄마가 안 한다고 버티는데 지금 당장 음식을 먹기가 힘드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엄마를 걱정하는 연로하신 아빠의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엄마는 시집간 딸인 저와 매일 같이 통화하면서도 제가 걱정할까 봐 치아가 불편하다는 내색을 한 번도 안 하셨던 겁니다.

아빠의 말씀은 오랜 시간 엄마의 양쪽 어금니 모두 흔들리고 약해지면서 서서히 6개나 빠져버려서 음식을 잘 씹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최소한의 치아를 계속 사용하니 그 치아마저 무리가 많이 가면서 염증이 생겼는지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임플란트에 들어갈 금액도 걱정되고 시골집에서 읍내까지 걸

어 나와서 버스를 갈아타고 치과가 있는 큰 도시로 가야 하는 여정도 막막해서 미루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양쪽 어금니가 다 없어서 음식 드시기 불편하셨으면 얼른 치료받아야죠. 아휴~ 당장 함께 치과로 가요, 엄마!"

"여기 읍내에는 치과가 없고 시내로 나가야 할 텐데 치과에 한두 번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있어 보련다."

"당장 잘 씹어 드시지를 못하는데 그러다 더 큰 일 나요. 엄마!"

사실 엄마는 임플란트 금액도 걱정이고 몸이 약하셔서 치과에 혼자 다닐 엄두가 안 나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마을의 작은 공장에서 근무하기에 매번 휴가를 내서 엄마와 함께 치과에 다니시기가 쉽지 않았고요.

"제가 무조건 모시고 갈게요. 일단 바로 치료 시작해요. 엄마, 돈보다 엄마 식사가 우선이에요."

부담되는 비용은 일단 할부로 결제하고 다달이 모아서 열심히 해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치과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친척분이 치위생사로 근무하는 치과인데 임플란트를 꼼꼼하게 해주고 가족 할인으로 가격도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엄마를 서울에 있는 치과로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엄마의 임플란트 대장정이 시작되었지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엄마는 충청도 작은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평택에서 엄마의 시골집으로 모시러 가는데 2시간, 엄마 집에서 서울 치과까지 가는데 2시간 30분, 다시 엄마를 모셔다드리는데 2시간 30분 그리고 제가 다시 집으로 오는데 2시간, 치과에 가는 날이면 매일 9시간을 운전했지요.

급한 대로 한쪽 위아래 어금니 3개 먼저 임플란트 시술에 들어갔는데 오래 방치되어 있던 잇몸도 성치 않아서 잇몸 이식 수술과 크고 작은 충치와 염증 치료까지 총 6개월 이상 소요되었어요. 치과에 10번 이상 방문했으니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엄마는 긴 시간 운전하는 저를 너무 안쓰러워하고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운전하며 엄마를 모시고 다니는 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엄마께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지요.

그 후로 저는 엄마와 치과 가기 전날이면 설레기까지 했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소풍 가는 기분으로 김밥과 샌드위치도 준비하고 엄마는 새벽부터 농사지은 옥수수와 감자 등을 쪄 오셔서 매번 9시간 동안 차 안에서 함께 먹고 이야기하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도시락을 늘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1차 임플란트 시술의 대장정을 끝마친 날 엄마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동안 이가 없어서 바람이 숭숭 들어가던 입안이 꽉 차니까 입안이 너무 무겁다! 호호호~" 아이처럼 기뻐하셨어요. 엄마가 던지신 농담 덕분에 차 안에서 깔깔 웃으며 엄마와 집으로 내려오던 그 시간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직 한쪽이지만 어떤 음식도 어려움 없이 꼭꼭 씹어서 드실 수 있는 엄마가 이제 마음 놓고 활짝 웃으시니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앞으로 반대쪽 2차 임플란트 치료가 더 남아있지만 그 시간도 '행복한 소풍'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며 무사히 치료를 마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우리 또다시 시작될 '행복한 소풍' 기대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요!

Letter 06

아버지와의 이별 준비

김성동 | 경남 양산시 동면

저는 20대 중반부터 여성시대를 열심히 듣고 있는 애청자로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장공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폰으로 매일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라디오에선 제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어떤 분들의 사연과 제가 너무도 공감할 수 있는 또 다른 분들의 사연이 존재하더군요. 저는 그저 재밌고 웃음 가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연들만 제 귀에 들어오는 줄 알았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아버지 기술을 전수받아 같이 하고 있는 셈이죠.

2년 전 8월, 난생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처음엔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거의 매일 일하셨습니다. 일 년 중 쉬는 날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을 겁니다. 비바람이 불고 모진 태풍이 불어와도 단 한 번도 피곤하다 한 적 없고 힘든 내색 없이 죽어라 일만 하던 분이 벽돌 위에 힘없는 모습으로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 제 눈에는 평상시와 달라 보였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몇 번을 물은 끝에 아버지는 대답해주셨습니다. 혈변이 나온다고. 그 말을 듣고 서울에서 일하던 저는 급한 일을 정리한 후에 본가가 있는 부산으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장암 4기라고요. 제가 흘려들었던 그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라디오 사연들이 제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까지 전이가 된 지라 일단 급한 대로 직장암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직장이 좁아지고 암세포들이 자라고 있으니 변이 얇아지고 혈변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병원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아프면 약 지어드시고 병원은 도통 가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니 혼자 끙끙 앓고 견디다가 병을 키우신 거죠. 아니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신 거죠.

힘들다는 항암을 시작해 24번까지 받으시는 동안 집에서 놀면 뭐하냐고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 같다고 하며 힘든 일 빼고 조금씩 일하셨습니다. 자식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일보다 몸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몸을 회복시킨 후에 일하셔도 안 늦어요."

수십 수백 번을 말씀드렸죠. 괜찮다며 계속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

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술 담배는 기본이거니와 가족들에게 물리적 폭력과 언어폭력을 일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활도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게 34년.

저는 도피하듯이 4년 전, 11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하였고, 우리 누나도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도피하듯이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술과 도박을 하며 사셨으니 집 사정은 뻔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투병 중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한 달 전부터 스스로 몸을 일으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가족을 저버리고 혼자 즐기며 사셨는지를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주위 분들이 다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에서 후회하시느냐 물으니 조금은 후회된다고 하십니다. 드시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시니 근육은 모두 빠져 앙상한 몸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 TV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며 너무 내 얘기 같아 많이 울었습니다. "평생 미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싶었다" 그 대사가 잊히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일어서지도 못한 채 누워계시기만 한 모습을 보니 너무 밉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제 핏줄 제 아버지인지라 꼭 그렇게만은 할 수가 없더군요. 슬프고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저를 더 옥죄어 옵니다.

자주 꿈을 꿉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꿈. 꿈에서 그런 저를 보며 미워하지 말라고 부모가 있기에 너도 네 자식도 있는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들. 잠에서 깨어 슬픈 감정이 그대로 현실에 전해지면 혼자 숨죽여 울곤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밉고 싫고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당신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나름대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서로 내색은 못 하지만요. 얼마 전까지도 미운 감정이 저를 지배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시지도 못한 채 삶의 끈을 놓으려는 아버지에게 하루를 살아도 알차게 사람답게 사시라고 조언해드립니다. 잘 드셔야 기력도 회복되고 걸으실 수 있을 거라고. 손자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방 사주고 떠나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힘내서 얼른 일어나시라고 사드린 고기를 드시고는 입맛이 돌아오는 거 같고 힘도 난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 줄기 희망을 품어봅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도움을 줄 것인지 기대해 봅니다.

아버지, 당신이 너무 밉고 싫었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니깐 끝까지 약한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Letter 07

수학의 쓸모

김정희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남자로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은 잘 안 하지만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쓰는가? 나는 평생 수학을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지만 수학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와 닿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미적분의 쓸모〉라는 책을 알게 되었고 책을 읽다 보니 독후감이 쓰고 싶어졌습니다. 이 독후감을 여성시대에 보냅니다.

책 〈미적분의 쓸모〉는 한화택 교수님이 어려운 미적분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주신 책이다.

뉴턴이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미분을 만들었고, 미분은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것을 계산하고 설명하는 수학 도구이다.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시속 110km로 간다고 할 때 이는 평균속력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톨게이트 하이패스를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알고 싶다면 그 통과하는 시점의 시간을 잘게 나누어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여 순간속도를 구하는데 이것이 미분의 개념이다. 과속카메라의 원리를 미분이 실생활에 활용된 예로 들어주셨다.

적분은 고대 이집트에서 나일강 범람 후 토지 측량하는 구분구적법을 소개해주셨다. 울퉁불퉁한 땅을 삼각형으로 잘게 쪼개어 삼각형 넓이를 합해서 땅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도 일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다고 한다. 잘게 쪼개어 합하는 구분구적법의 원리가 적분의 개념이다.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나오고 이 시간으로 잘게 나누는 것이 미분이며, 시간당 이동 거리, 즉 속력인데 짧은 시간당 이동 거리인 순간속력을 켜켜이 쌓으면 전체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나오고 이 쌓는 과정이 적분이다.

CT 촬영은 여러 각도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이를 다시 재조합하여 3차원의 모습으로 구현한 것인데 이는 2차원의 이미지를 적분하여 3차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주셨다.

초등학교 때 사칙연산을 배운 후에는 대수방정식을 배운다. 학과 거북이가 총 몇 마리이고 다리가 총 몇 개인지를 알면 학이 몇 마리고 거북이가 몇 마리인지는 방정식을 세워 문제를 푼다. 미분은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는 도구이다.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운 후에는 대학에서 미분방정식을 배운다.

수도관을 흐르는 물의 움직임을 미분방정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움직임을 미분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는 않다.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퍼지는 움직임, 눈발이 휘날리는 모습, 파도치는 모습 등은 미분방정식을 세워 해를 구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 〈겨울 왕국〉에서 눈발이 휘날리는 모습, 눈덩이가 굴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파도치는 모습, 〈해리 포터〉에서 용이 불을 뿜는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것이란 걸 알고 있다. 컴퓨터로 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한다고 한다. 방정식의 근사해를 더 정확하게 구하려고 수학자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영화의 장면들로 보여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학자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탔다고 한다. 영화 속에 미분방정식이 있고 수학자들의 노력이 있다는 설명에서 수학의 쓸모를 체감할 수 있었다.

변화를 설명하는 데 미분방정식이 쓰이니 이를 활용해 변화를 예측할 수도 있다. 미래의 지구 온도, 거시경제 전망 등을 미분방정식을 세워 예측한다. 미분방정식을 세울 때는 변화를 유발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관찰하여 변수로 잡아서 식을 세운다.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변화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변수를 잡아 미분방정식을 세워서 예측한다.

그런데 주식 시세는 예측이 어렵다. 결과를 본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짜 맞추는 해석을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식 시세를 예측하려 하고 거시경제를 전망하려고 한다. 변화를 일으키는 변수가 어떤 것들인지 정하는 데 변수가 많을수록 문제가 복잡해지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 복잡한 문제들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동안 쌓인 데이터들을 컴퓨터가 학습하게 하여 변화를 예측하게 한다. 예측하는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담당한다. 인공지능이 좋을수록 미래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더 좋은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수학이 필요하다.

특히 이 책이 좋았던 것은 가속화의 원리와 안정화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자연현상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에 빗대어 설명한 부분이

다. 가속화의 원리는 장작이 타면서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안정화의 원리는 장작의 온도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오르면 평형점을 찾아간다고 한다. 그냥 단어로만 정리해주는 게 아니라 방출되는 복사에너지가 절대온도의 네 제곱에 비례해서 그렇다는 이유도 말해준다.

인생도 그러하다고 한다. 부모님 울타리 속에서 자라다가 20~30대 고생을 하고 40대에 잘 나가다가 중후반 고난이 찾아온다. 50에 바닥을 찍고 노력하여 재기하여 60까지 다시 성장하며 안정을 이룬다. 60 이후 다시 그래프는 내려간다.

나의 인생은 용두사미 중이었다. 중간중간 결혼, 아이들 우수상 등 반등은 있었으나 추세적으로 도함수가 음이었다. 현재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이 이차도함수가 음인지, 0인지, 양인지 모르겠다. 확실한 건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이차도함수를 양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곧 일차도함수 역시 양으로 변할 것이다. 노력만으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는데 안정화의 원리란 게 있단다. 이런 걸 자연의 섭리라고 하나 보다.

그게 작동하면 버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평형점을 찾을 것이고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뜻도 모르고 겉멋으로 이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다. 자연의 섭리 상 땅의 꽃과 하늘의 달은 주기성이 있어 꽃은 또 피게 되어 있고 달은 다시 차오르게 되어 있다. 내 인생이라고 별나지 않다. 꽃과 달처럼 나 역시 자연의 일부 아니던가? 다시 새로운 평형점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니 의심하거나 불안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을 쓰신 한화택 교수님도 독후감을 쓰는 나도 우리 모두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이다. 영차영차!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Letter 08

나의 히어로

허다원 |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가 될 제 신랑의 제2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신랑을 만나게 된 사연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도 10분 정도 더 가면 나오는 원통이라는 마을이 고향입니다. 제 나이 올해 50인데 대구에서 산 지는 30년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착하고 순진하다고들 하잖아요? 저 때문에 생겨난 말인 듯해요. 그 당시 저는 너무 순진하긴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남의 말에는 의심을 하나도 하지 않고 거의 믿는 편이었죠. 그런 제가 신기했는지 주위에서는 저를 천연기념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21살 때쯤 대구에 와서 사귄 친구가 있었어요. 미숙이라고 지금도 가끔 만나고 있어요. 울산에서 미용실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점 보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같이 점 보러 참 많이도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저희 둘은 밀양이라는 곳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해서 가보게 되었지요.

저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마지막에 "저는 언제 결혼을 하나요?" 물었고 점쟁이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다고 했어요. 저는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과 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봤지요. 이런 황당한 질문에 점쟁이는 동전을 던지고 방울을 흔들더니 "아이고, 시끄럽네. 자동차 소리도 나네.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키는 크지 않고 안경도 썼고 배도 살짝 나왔어" 점쟁이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점을 보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점쟁이 말은 잊고 산 지 7~8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하려고 차에 시동을 거는데 차가 방전이 된 거예요. 저는 잠깐 당황했고 출근할 때 본 것 같은 길 건너 자동차정비센터로 달려갔지요. 그렇게 제 차는 정비소에 맡겨졌고 이참에 이곳저곳 손도 볼 겸 3일 후에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차를 찾으러 간 그곳에서 저는 8년 전 들었던 점쟁이 말이 순간 떠올랐어요. 제 나이 어느덧 29살, 자동차 정비를 하는 저 남자 키도 작고 안경도 썼고 살짝 배도 나온 듯. 이제 저에게 관심만 보이면 되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죠.

저 혼자 너무 앞서 나갔나 속으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운명의 남자가 저에게 밥 한 번 사겠다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가오픈 기간 중 제일 큰 손님이었대요. 제가 신랑을 만난 그때는 신랑이 H자동차 대구 사업소에서 10년 근무하다가 정비센터를 인가받아서 정식 오픈을 며칠 앞둔 가오픈 상태였지요.

신랑은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남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제 신랑이 28년간 몸담아온 할 줄 아는 건 정비뿐인 사람이 2021년 5월 14일에 정비 인생을 퇴직했습니다. 저와 두 딸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와 편지를 전해주었답니다. 그날 아침 신랑도 울고 저도 울고 그렇게 눈물의 전달식을 했지요.

그게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네요. 정비를 그만둔 신랑은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두려움 없이 잘 해나가기에 일로는 힘들다고 하지 않는데 한 가지 힘든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가족과 다 같이 오붓하게 저녁 식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의 특성상 신랑이 밤 근무를 하기 때문이지요.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잠을 자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고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퇴근해서 집에 오면 신랑은 편의점에 출근해서 없고, 한동안은 잠도 안 오고 무서워서 애들 몰래 울기도 여러 번 했답니다.

신랑이 편의점을 하기 전에는 제 출퇴근 때 매일 데려다줬어요. 지금은 신랑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가 바로 출근 시간이라 아침 출근은 신랑이 매일 해주고 있어요. 잠도 오고 피곤할 텐데 싫은 내색 한 번도 안 하고 해주는 신랑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출근시켜 주는 30분의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 중 유일한 대화시간이거든요. 가끔 예전에 쉬는 날에 여행 다니며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하면 지금이 힘들긴 해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조금 더 고생하겠다는 신랑을 보며 또 힘을 내고 살아갑니다.

저는 휴대폰에 신랑을 '나의 히어로'라고 입력했어요. 우리 가족의 영원한 히어로, 나의 영웅. 신랑은 못 해내는 일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말하죠.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냐고. 대부분 아니라고 하지요. 하지만 저는 예스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남



자를 저는 또 선택할 겁니다.

신랑은 저를 '철없는 아내'라고 부릅니다. 저의 약간의 구멍 백치미가 사랑스럽대요. 죽을 때까지 철들지 말래요. 저를 처음 만나 지금까지 변함없이 성실히 노력하고 공부하며 최선을 다하는 제 신랑을 두분과 여성시대 모든 청취자분께 자랑하고 싶어서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박수와 격려로 제 신랑이 힘을 얻어서 제2의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보, 항상 가족이 1순위인 당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당신 건강이 먼저예요. 건강 챙기면서 쉬엄쉬엄 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의 히어로, 나의 영웅. 당신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 당신의 철없는 아내가

Letter 09

1일 아르바이트

김지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저는 40대 중반이고 신혼이에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남편도 40대 중반의 나이이니만큼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감사한 나날들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게 자궁근종 수술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여 수술을 하게 되는 바람에 기왕 이렇게 된 것 건강한 몸도 만들 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고 지금은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9월 어느 날, 휴대폰에서 〈1일 아르바이트 - 거주지만 입력하세요.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로 연결해드려요〉라는 배너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솔깃한 내용에 갈등했습니다. 해볼까? 말까? 내 나이에 해도 될까? 그 순간 〈40대 50대 지원하세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

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간편 지원' 버튼을 클릭해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넣고 "에라 모르겠다!"라고 크게 외치며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분쯤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김지수 씨죠?"

수화기 너머의 상담원 목소리는 친절했고 걱정이 많았던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 셔틀이 온다고 하는 버스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6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를 비롯한 아르바이트생들을 태우는 버스를 탔는데 모두 눈을 감고 졸고 있는 것이 고된 노동자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약 30분을 달렸을까 버스는 어느새 도착지에 도착하였고 사람들을 따라 출석 체크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익숙하게 개인카드를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는 사람들 틈에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되었고 직원분이 친절하게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맞은편 출입구로 가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키가 160cm도 안 되었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가 M이었어요. M 외에는 L, XL, XXL…. 주저 없이 M을 선택하고 갈아입었습니다. M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우주복이라고 아시나요? 배꼽에서 목 끝까지 지퍼로 올리는 한 벌로 된 우주선 탈 때 입을 것 같은 옷. 생전 그런 옷은 처음 봤고 처음 입어봤습니다. 신발도 겉이 두껍고 딱딱한 안전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리고 벗은 옷과 신발과 소지품 등은 사물함에 넣고 교육장으로 갔습니다.

먼저 분류 업무를 배웠습니다. 한 무더기의 상자 더미에는 품목과 수량이 제각각인 상자들이 모여 있어 이것을 같은 품목과 같은 수량을 지닌 상자들로 덩이 짓기를 해두는 일이었어요.

작업장의 거세고 시끄러운 팬 돌아가는 소리에 사람들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리더분의 설명을 놓칠세라 매우 집중하며 들었는데 요령이 생기다 보니 점차 익숙해지고 손과 발도 빨라졌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는 되는 큰 작업장 내부에서 한 부분은 분류와 검수, 또 한 부분에서는 지역별 분류, 랩핑, 운반 등을 하는 터라 모두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이 물건들을 운반하는 '자키'라고 하는 수동지게차를 사용하는 법도 배웠답니다.

물품이 쌓여 있는 팔레트 구멍에 자키의 두 다리를 맞춰 끼우고 발로 힘껏 차듯이 눌러 밀어 넣고 자키 손잡이 양쪽을 잡고 펌프질하듯 대여섯 번 눌러주면 팔레트가 점차 지면 위로 떠오르는데 그때 손잡이 양쪽을 잡아끌고 앞을 보며 가는 거였죠. 처음에는 발로 차는 힘도 약하고 자키로 방향 전환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점차 익숙해지니 도로 위에서 초보운전자가 능숙한 운전 경력자가 되듯 자유자재로 방향 전환도 하고 전진 후진도 잘하게 되어 신이 나더라고요.

일이 조금 익숙해지나 싶었을 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스마트폰의 만보기를 보았더니 이미 1만 2천 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영하 19도의 한기를 자랑하는 냉동센터에 갔습니다. 새로운 리더분께서 말씀하시길 이곳은 추워서 조금 까다롭지만 공정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고 일의 분량이 많지 않으니 여유 있게 다치지 않게 하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할 업무는 오전에 배웠던 자키를 사용해 운반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 5분이 지나자 차가워진 이마에서 가볍게 열이 나기 시작했고 두통도 조금 왔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속에서는 양쪽 콧구멍에서 주르륵 콧물이 흐르고 있네요.

리더 분께 가서 모자가 있는지 물었더니 익숙한 질문을 받았다는 듯이 재빨리 털모자를 갖다주셔서 직접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확실히 모자로 이마와 머리 전체를 감싸니 견딜만했습니다. 콧물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드디어 약속했던 업무시간이 끝나고 꼭대기 층에 있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으며 계약직 원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4대 보험도 되고 일정한 액수가 보장되는 월급 등의 혜택에 솔깃했지만 임신 준비를 위해서 계약직은 못하더라도 일당으로 받는 일용직은 계속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니 그것도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응대해주셨습니다.

드디어 퇴근길 셔틀에 올랐습니다. 셔틀에 탄 사람들은 셔틀을 타면서 각자 옆 사람과 수다도 떨고 즐거운 모습이더군요. 아,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지. 역시 사람은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나는 오늘 하루 값지게 보냈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했습니다.

어느덧 제 휴대폰 만보기는 1만 8천 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Letter 10

엄마의 사랑방에 다녀와서

이선녀 | 서울 도봉구 마들로

집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도로에 4층짜리 낮은 건물 2층에는 작은 의원이 자리 잡고 있다. 엘리베이터도 없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불편한 곳이지만 동네 사람 대부분은 불편을 토로하지 않는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계단 난간을 붙잡고 마치 산 정상을 오르듯 악착같이 걸음을 옮겨 병원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 화사한 미소로 환자를 맞이하는 간호사의 청아한 인사가 이어진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환자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 기억하고 있어서 대기자 명단을 따로 적을 필요도 없다. 그간의 안부를 물으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이곳이 정말 병원인가 싶을 때도 있다.

지난여름, 미열도 나고 배도 아파서 그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 큰

병원에 갈까도 했는데 더위에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우리 동네 그 가까운 의원에 갔었다.

토요일이라 문을 닫았을까 봐 조바심을 내며 들어섰는데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고 푸근한 인상의 의사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증상은 어떤지 자세히 물어보았다. 일주일 정도 몸살 기운이 있고 입맛도 없고 오한도 있다고 설명하니 냉방병 가능성이 있다며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 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직장에서 내 자리가 에어컨 바람이 가장 센 곳. 얇은 겉옷을 챙겨 입어도 내내 한기가 느껴져 불편했다.

의사는 수액을 처방해주며 여름이지만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시간날 때마다 냉방 공간을 벗어나 주변을 걸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라고 했다. 무슨 큰 병 아닐까 걱정했는데 꼼꼼하고 자세한 설명에 안심이 됐다.

처방해 준 수액을 다 맞으려면 30분은 족히 더 걸릴 것 같아서 "저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셔서 어쩌죠?" 물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물건을 놓고 간 환자분이 곧 찾으러 오신다고도 했고, 제가 할 일이 많아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이 놓였다. 병원이 마침 시장 근처다 보니 시장 본 걸 깜박 잊고 두고 가는 사람, 아예 물건을 사서 맡기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아침이면 새벽잠 없는 어르신들이 계단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의료진이 출근하기 한 시간 전부터 진을 치고 기다린다는 얘길 들을 땐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

환자들이 다 빠져나간 시간, 나 혼자만 간이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왔다.

"혹시 채소 필요하세요?"

내가 의아한 눈길로 대답을 머뭇거리자 "아, 좀 전에 주말농장에 다녀오던 단골 환자분이 채소를 한 보따리 주고 가셔서요. 너무 많아서 나눠드리려고요."

요즘 채소가 금값인데, 나는 귀가 솔깃해서 좋다고 했다. 치료가 끝나고 비닐봉지 가득 싱싱한 푸성귀를 한가득 받아서 들고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돌아오는데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급하게 달려가면 점심시간에도 환자의 편의를 봐주는 병원, 소나기가 쏟아지면 미리 준비해둔 우산을 내어주고 과하게 진료를 하지도 않을뿐더러 오래된 단골 환자들은 원장님한테 속 썩이는 자식들 이야기에 온갖 고민을 다 털어놓고 간단다. 동네 사람들 누구나 인품 넉넉한 원장을 찾아가 하소연을 할 수 있으니 이곳은 동네 작은 의원이 아니라 마치 환자 맞춤의 종합병원 같다.

그 원장님을 신임하고 의지하는 우리 엄마 역시 관절이 아파도 그 병원에 가고 부인과 질병에도 그 병원에 가고 아프지 않아도 그 병원에 가신다. 의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불안한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에 돌아오는 엄마의 발걸음은 항상 가볍고 표정이 밝으시다.

오늘도 우리 동네 누군가는 아픈 마음을 무겁게 안고 또는 밭에서 농사지은 채소를 두 손 가득 들고 그 병원으로 향하겠지. 소탈한 원장님의 '껄껄껄' 웃음소리가 대기실에 퍼지면 잔뜩 긴장했던 환자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찰실로 들어갈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어쩌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먼저 아프고 지쳐가고 있음을 그 원장님은 알고 계신 듯하다.

Letter 11

제게 힘을 주소서

애청자

오늘도 삼광사 탑을 돈다. 얼마나 걸었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답답할 때 지인의 추천으로 절에 가 탑 주위를 걸어보라는 권유로 집 근처 삼광사에 들렀는데 내가 하고 있는 고민과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나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30대 후반에 퇴사해 몇 번의 사업 실패로 빚만 늘어난 상황에 예전부터 해왔던 컴퓨터 관련업을 다시 시작했다. 집은 부산이지만 울산에 사무실을 내고 9살, 6살 두 딸을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일에 매달렸다.

처음부터 잘될 거라 생각하진 않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출금과 각종 공과금. 이제 아파트 관리비도 너무 밀려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전화까지.

애들은 점점 크고 돈 들어갈 곳은 많아지고 많은 아빠, 가장, 사장님들이 그렇듯 나 또한 마음이 점점 무겁고 약해지기 시작했다. 당장 이번 달 월세, 대출금 걱정에 밤에 쉽게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을 가까이하게 되었다. 그래도 아이들 웃는 모습에 무거운 마음을 하루쯤은 내려놔 본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날 때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삼광사에 들렀다. 돌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도와 달라, 살려 달라, 우리 가족을 지키게 해 달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열심히 살았으나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 화도 나고 가족들 생각에 눈물도 나곤 했다.

그렇게 탑 주위를 돌다 보니 다리는 무거워지고 생각도 점점 없어지니 내가 무얼 해야 할지 생각이 들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하는 일, 멍때리고 앉아 세상 탓만 하기엔 아빠만 보면 웃어주는 두 딸과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가만있을 수 없었다.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종이에 적어 본다. 그 일을 마치고 하나씩 지워나간다. 멈춰 있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 달라 빌어 본다.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또 절에 가서 마음을 비워보리라.



Letter 12

아내를 위해 만든 김밥

임세규 |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큰딸 선영이의 설마 했던 감기 증상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우리 가족은 하루 간격을 두고 나와 아내, 둘째 딸까지 모두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다.

"차라리 가족이 한 번에 확진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환자는 격리 해제가 끝나면 가족 중 다른 한 명으로 계속 이어져서 무척 힘들어했어요."

그날 점심, 우리 네 식구는 마스크를 모두 벗고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같이했다. 나와 두 딸은 고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확진 3일째 되는 날 아침 아내가 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얼른 체온계로 재보니 열은 38도를 넘어가고 있었다.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코로나로 인한 각종 흉흉한 정보들을 하

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다. 아내의 이마에 손을 올려보고 몸을 만져보니 뜨끈뜨끈했다. 어린 시절 내가 열이 났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방법이 떠올랐다.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아와서 꼭 짠 후에 일단 이마에 올렸다. 하지만 열을 떨어뜨리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정보를 검색했다. '아뿔싸!'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었구나. 수건에 물기를 어느 정도 짠 후 아내의 이마와 온몸을 닦아냈다. 다행히 해열제와 물수건 때문인지 반나절 만에 아내의 열은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방 저 방에서 기침을 하고 '그윽 그윽' 가래 끓는 소리가 일주일 내내 온 집안에 가득 울렸다. 제일 먼저 코로나에 확진된 큰딸부터 격리 해제가 순차적으로 되기 시작했다.

아내는 주말에도 쉼 없이 일하는 아울렛 매장 직원이다. 계절이 바뀌는 시즌이라 일손이 모자랄 때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하니까 동료들이 고생할 거라며 마음 걸려 했다.

우리 가족은 예방주사 때문인지 그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잘 지내왔지만 결국 코로나바이러스를 받아들여야 했다. 코로나에 걸려보니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무기력, 두통, 코막힘, 가래 등의 증상을 느꼈다. 격리 해제가 된 이후 목 아픔 증상은 꽤 오래갔다. 특히 종일 고객 응대를 해야 하는 아내가 힘들어했다.

코로나 격리 해제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아내의 생일이었다. 올해 생일 선물은 어떤 걸 해줄까 고민하다가 꽃, 반지, 옷보다는 아내가 좋아하는 김밥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생일 선물을 김밥으로 해주다니. 드라마에서 나오는 멋지고 근사한 요리도 아니고 말이다. 하지만 물질적인 행복보다 투박하지만 정성으로 만든 김밥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다. 코로나로 인해 입맛과 미각을 잃었다는 아내에게 좋을 것 같았다.



"가자~ 마트로~."

둘째와 함께 김밥 재료를 사러 갔다. 김밥 세트도 잘 나왔는데 그것보다 집에 있는 재료를 써 볼까 싶어서 두어 가지를 간단히 사서 돌아왔다. 평소에 자주 보는 너튜브 채널을 참고해서 꼬다리 김밥을 만들기로 했다. 묵은지 김치와 참치, 깻잎을 메인으로 달걀지단, 스팸, 청양고추를 활용해서 만들었다. 김밥 재료 준비와 설거지는 내가 하고 김밥을 마는 건 둘째 딸이 도와줬다.

"짜잔~ 완성이다."

김밥 꽃이 만들어졌다. 깻잎 모양 때문에 그렇게 됐다. 곁들인 오렌지 주스와 포도 주스가 유난히 다정해 보인다. 아내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입 안 가득 김밥 꽃향기가 아내의 온몸으로 퍼졌다. 아내가 포도 주스를 한 모금 마시더니 '엄지척!'을 올렸다.

Letter 13

자전거의 맛

임순향 | 울산광역시 남구

오늘도 꽉 막힌 마음을 달래려 자전거를 탄다. 다들 꽁꽁 싸매고 페달을 힘차게 밟는 모습에서 생동감을 느낀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내가 지켜본 다양한 자전거 운전자들의 차이점을 말해볼까 한다.

첫째, 패기 넘치는 야생마 남자 운전자. 역삼각형 체형과 군살 없는 허리를 지닌 남자 운전자는 광택이 도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딱 붙는 운동복을 입고 허리는 살짝 접고 두 무릎은 평행선 형태를 띤 채로 힘 있게 페달을 밟는다. 바람 소리가 쌩쌩 들려온다. 마치 경주마가 달리는 듯 멋지게 질주한다.

두 번째, 멋이 느껴지는 나비 같은 여성 운전자. 헬멧, 선글라스, 운동복, 신발 등 착용한 모든 것이 참 예쁘다. 속도를 내기보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나비같이 살랑살랑 서행한다. 자외선에도 운동하

는 큰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세 번째, 나이가 있는 마실 나온 아저씨. 벙거지를 쓰고 체크 남방을 입고 토시까지 했다. 시원해 보이는 반바지와 샌들, 거기에 망사조끼까지 걸치고 나면 아저씨의 패션은 완성. 거기다 망사조끼 앞주머니 안에는 항상 라디오가 꽂혀 있다. 라디오에선 신명 나는 트로트가 쿵작쿵작 흘러나온다. 옆구리 살이 삐죽 나온 아저씨는 무릎을 쩍 벌리고 페달을 슬슬 돌린다. 왼쪽 오른쪽~ 세월아 네월아~ 그렇게 여유롭게 간다. 좋다.

네 번째, 중년의 자아도취형 아줌마. 대부분 챙이 넓은 모자에 박스형 면티, 쫄바지와 선글라스를 필수로 착용한다. 덤으로 목을 덮는 손수건과 레이스 장갑까지. 앞만 보고 조심스럽게 간다. 추월당하면 당황해서 가끔 삐뚤삐뚤하게 중앙선을 넘기도 한다. 그래도 엄청나게 행복해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탄다. 마치 '자전거 아무나 타는 거 아니거든? 훗!'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아마 은근한 자기 만족감에 황홀할 것이다. 딱, 얼마 전까지 내 모습이라 보고 있으면 미소가 지어진다.

다섯 번째, 엄마 아빠 앞에서 엉덩이를 삐뚤거리며 움직이는 어린이 운전자. 내 눈에 제일 제일 예쁘고 귀엽게 느껴진다.

어느덧 나도 자전거 라이딩 2년 차다. 60대 중반치고는 그래도 좀 탄다. 앞에서 속도가 안 나면 종을 따릉! 울리기도 한다. 보란 듯이 추월하며 '하하~ 이 맛이야' 쾌재를 부르기도 한다. 차가 갈 수 없는 길, 여기저기를 쏘다니는 자전거의 맛. 진짜 맛있다. 찐 행복이다. 나는 오늘도 집을 나서 태화강변을 쌩 달린다.

Letter 14

봉투 속의 월급

윤유정 | 서울 관악구 대학길

얼마 전 신랑이 월급날을 맞아 긴급하게 제안할 게 있다고 한다. 그래서 '뭔 사고를 쳤나?' 상당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듣는데 동료 중에 월급날 자기는 용돈을 꼭 현금으로 그것도 용돈 봉투에 담아서 받는다고 하면서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 경제부 장관은 저고 그래서 신랑의 모든 월급은 당연히 제가 담당하고 있고 신랑 용돈 역시 신랑의 용돈 계좌에 따박따박 넣어줍니다.

그 말을 들어 보니 뭐 어려운 게 아니겠더라고요. 저 어릴 적 우리 아빠도 누런 봉투에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오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용돈이라도 직접 현물로 만져보고 싶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신랑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기에 흔쾌

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은행 CD기에 가서 현금으로 용돈을 뽑아 하얀 봉투에 담아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라고 써서 줬더니 아이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렇게 용돈 봉투를 받은 신랑은 기분이라면서 경제부장관 하면서 당신도 고생했다면서 만 원짜리 1장을 주면서 "오늘은 집에서 커피 마시지 말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꼭 사 마시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 안 그러면 돈 다시 반납해야 할 거야."

사실 그 돈이 돌고 도는 건데 사람 기분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 덕에 저도 오랜만에 동네 조용한 카페에 가서 현금을 내고 커피를 마시고 기분 내고 왔네요.

그리고 그날 퇴근한 신랑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컵라면과 과자를 똑같이 2봉지씩 들고 와서 아이들한테도 아빠 월급날은 이렇게 과자랑 라면을 쏘겠다면서 아이들 손에 들려주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소한 행복이었네요.

월급날이면 자동이체에 대출이자에 카드값 납부에 돈 들어오기가 무섭게 빠져나가느라 신랑에게 한 번도 고생했다는 말을 못 했던 제가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돈에 쫓기듯 살아온 우리 삶에 신랑 동료 덕분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조금 패턴을 바꿨을 뿐인데 한 달에 한 번 오는 신랑의 월급날이 기다려지고 신랑 역시 자존감도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계기가 된 거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용돈만큼은 상당히 격을 갖추고 빳빳한 현금으로 뽑아 신랑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여보, 늘 고맙고 존경하고 사랑해!

Letter 15

인생 대학 여성시대

이예진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우리는 살아가며 타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기뻐하는 이, 슬퍼하는 이, 화를 내는 이도 있고 내 작은 언행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존경하는 은사님을 꽤 여러분 만났습니다. 지식만을 전파해준 게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이 아닌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분도 계시고 측은지심이 무엇인지 눈물로 보여준 분도 계십니다.

이런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받은 저는 무사히 사회로 발을 디딜 수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니 더 이상 제 주변에 선생님이 없다는 것. 19살과 20살은 딱 1년 차이인데 더 이상 제 앞길을 끌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습

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운 좋게 은행에 취업했지만 내성적이었던 저는 불특정 다수와 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어른이라도 '스승'이었던 분들과 '상사'로 저를 가르치던 분들은 아주 달랐습니다. 세 갈래의 길에서 은사님들은 어떤 길로 가도 괜찮다며 이끌어주셨다면 상사분들은 딱 하나의 길만 옳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연히 학교와 회사는 다르고 이해관계로 얽힌 조직에서 상사와 은사님의 역할 또한 달랐지만 어렸던 저는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결혼하면서 은행을 그만두었습니다. 사회 생활하는 동안 일머리만 늘고 내면은 그다지 성숙하지 못했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의 '잉여 인간'이었습니다. 남에게 가르쳐줄 삶의 지혜가 없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퀴즈의 정답을 문자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운전하고 있던 남편이 본인 대신해 정답을 보내 달라고 했고 저는 운 좋게도 당첨이 되어 작은 기프티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매일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멍하니 하루를 시작하던 제 일상이 여성시대를 듣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두 분 모두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가끔 들으신다던 라디오 여성시대.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퀴즈 상품을 받거나 제 전화번호 뒷자리가 불리는 게 재밌어서 들었는데 듣다 보니 이곳엔 제가 바라고 찾던 인생의 스승님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드라마 같은 사연, 그 사연에 좋은 말씀을 얹어주는 진행자분들, 그리고 댓글이나 문자로 공감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더해주시는 분들까



지 다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라 듣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상담과 이런저런 질문에 토론까지. 학창 시절 은사님들께 배운 사랑과 정 그리고 측은지심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배우는 기분입니다.

여성시대 당당이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내시는 사연, 남기시는 짧은 댓글에서 인생을 배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계신다면 그 생각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누군가의 인생 선배이며 누군가에게 삶을 가르치는 여성시대 교수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배우는 곳, 인생의 참의미를 가르쳐 주는 곳, 인생 대학 여성시대, 고맙습니다.

Letter 16

10년 만기 적금

송미선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오늘 기쁘고도 슬픈 일이 벌어졌다. 기쁜 일은 10년 만기 적금을 찾은 것이고 슬픈 일은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바야흐로 10년 전, 남편과 나는 당시 살던 지역의 은행에 방문했던 일이 있었다. 창구에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앳된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여직원이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부부에게 적금 권유를 했다.

"이게요 비과세고요 이율도 좋고요 세금도 비과세고요."

비과세라는 말을 두 번 했었다. 그때 그 여직원의 얼굴에서 나는 어떠한 절실함을 느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의 우리는 외벌이에 아들을 키우며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한 부부였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은 가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선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금액대를 생각해보니 20만 원대는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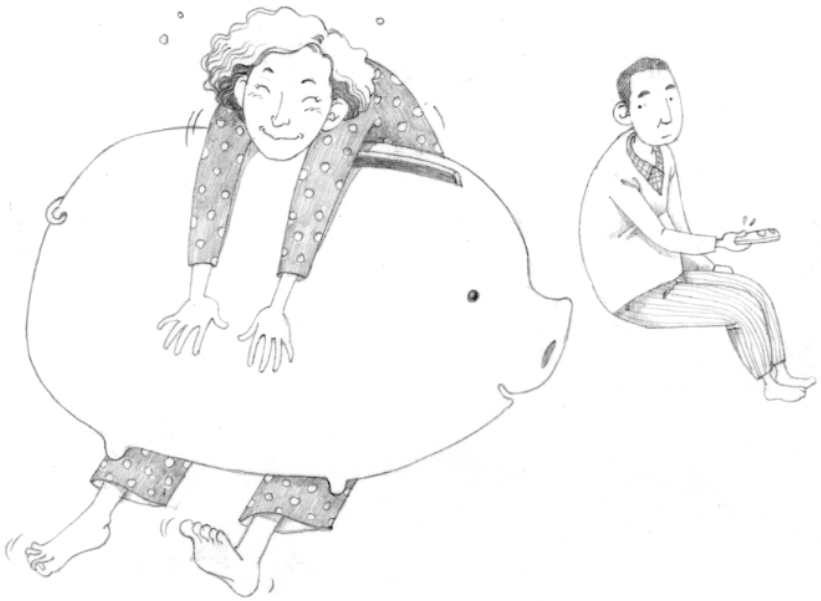
"이걸로 가입할게요."

이 말을 한 순간 여직원의 환한 웃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남편은 옆에서 연신 투덜거리고 서 있었다. 이걸 왜 가입하느냐고, 언제 10년을 기다리느냐고, 그러다가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종알거렸다. 사실 나도 내가 과연 10년 만기 적금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그러나 남편이 잔소리를 하니까 더 오기가 생겨서 가입을 추진했던 것 같다. 가입을 마친 후 여직원이 세탁세제와 주방세제, 휴지, 행주 등을 잔뜩 챙겨줘서 바리바리 싸서 집으로 돌아왔다. 물론 오는 내내 남편의 잔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너는 세제에 너무 약하다고. 겨우 이런 거 받고 그렇게 좋으냐고. 이런 거 받고 너처럼 좋아하는 애는 없을 거라고.

그러던 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가고, 일 년 이 년 삼 년이 지나 어느새 벌써 10년이 되었다. 40대 초반에 어떻게든 집 장만을 하겠다고 10원, 20원에 극성을 떨었던 나는 어느새 내일 당장 세상이 멸망해도 별생각 없는 오십 대의 갱년기 여성이 되었고, 12살의 말 한마디 똑바로 못하고 어리벙벙했던 내 아들은 22살의 똑똑한 대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187센티의 장신의 쭉 뻗은 몸을 가졌던 내 젊었던 남편은 10년 사이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로 키만 멀대 같이 큰, 꾸부정한 볼품없는 중년 남성이 되어 있다.

내 1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아팠던 일도 괴로웠던 일도 용기 충만했던 일도 많았다. 그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 오늘 3천만 원이란



큰돈이 내 손에 떨어지게 되었다. 돈을 창구에서 찾고 감회가 새로웠다. '이걸 갖고 튀어?' 잠시 갈등했지만 남편과 상의해서 쓸 계획이다.

남편의 오래된 자동차를 바꿔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아마도 남편은 절대로 지금의 차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는 매년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마다 내게 하는 소리가 있다.

"검사하는 사람이 앞으로 10년은 더 타도 될 정도로 상태가 아주 좋다고 했어."

자동차를 못 사게 한다면 아마 남은 대출금을 갚을 것 같다. 그러나 일단은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 내 통장에 당분간은 넣어둬야겠다.

이달의 손편지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오선영 | 충남 서산시 해미면

탄으로 꽃망울이 뚝뚝 떨어지던 5월 어느날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주 멀리 보내드리고 얼마 전 나무재도 올려드립니다.

저는 감수성 짙은 소녀도 아니고, 세상을 얼마쯤 살았다고 생각했고 기쁨과 슬픔을 얼마쯤은 조절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잘 모르면서 6개월을 살았나봅니다.

아버지가 가신 후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6개월을 살면서 힘든 일도 참 많았었는데 이렇게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슬픔 일이 있었다는게 새삼 놀랍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저는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옆에 있는 연사무소에 다니셔서 편하기 했지요.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아버지 자전거 뒤꽁무니에 타고 등교하여 아버지 등 뒤에서 듣던 아버지의 휘파람 소리가 너무나 듣기가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그립습니다.

대학교 때는 아버지와 집에서나 자취하여 아버지와 나누어보던 많은 시간과 대화들이 잊고지만 같아요.

글쓰기 좋아하시고 책읽기좋아하던 아버지는 좋은 책을 골라주시고 서로 독후감을 얘기하며 아껴던 우리 한참은 나를 성장케 했던 자양분이었어요.

은퇴하시고도 늘 책과 낚시 와인을 즐기셨던 로맨티스트 우리아버지 ~

지나고 보니 알게 모르게 아버지 속을 썩이고 힘들게 했었지만 제가 아버지께 제일 잘한 것은 노년의 아버지와 옆집에 살면서 책 사드리고 바닷가 드라이브 해드리고 아버지와 함께 나이든 아저씨 같은 시간을 함께했던 것이지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먼저 안오신다고 서운해 하십니다. 가슴아파요.

보고싶어도 볼 수 없는 아버지 생각에 가슴아프고 가끔 떠올라면 엉뚱한 말씀하시는 엄마 뵙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많은 추억을 함께했으니

이만큼이 슬픔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고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순리인데 왜 이리 힘이 들까? 너무 괴롭기도 합니다.

슬픔도 아픔정도 모두 오롯이 겪어야겠지요.

이제 입추도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겠지요.

가을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들으며 슬픔과 아픔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승 이 세상에도 부모님의 범위으로 힘드신 분들 투병하는 계신 모든 부모님들 힘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해이음성이 아뢰옵.

해이에서 오선영 드림.

여성시대 사진방



[0045] 저는 축구 시작한 지 세 달 되어 가요. 아들 둘도 축구하고 남편도 축구를 좋아해서 요즘 모든 대화는 축구가 주제이고 축구로 인해 대화가 끝이 없네요.



[4325] 아침 6시부터 일하고 있어요.



[6160] 양희은 누님의 책 나왔다는 소리에 두 정거장의 거리에 있는 기업은행에 가서 받았습니다. 처음 받아봅니다. 책 내용도 알차고 책 표지의 두 분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8387] 오늘도 공장에 미싱을 못 돌리고 있네요. 옷 샘플 만드는 곳인데 거래하던 곳들이 임금 싼 베트남이나 미얀마로 가버려서 아주 급한 것들만 들어와, 할 것이 없어도 출근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3065] 가을이 안겨준 선물입니다. 호박죽, 호박전 해서 이웃들과 나눠 먹으렵니다.



[1120] 회사 근처에 자리 잡은 식당입니다. 어제는 손님들 착용하는 앞치마 60여 개를 세탁하고 오늘은 방석 세탁해서 건조 중이에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서울 동작구 의
여성시대 가족 이혜나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오랜 세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몇 년 전 정년 퇴임을 하신 아빠는



젊은 날 바빠서 못하셨던 일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중에 하나는



매달 월간 여성 시대를 가져다주시는 건데요,

그건 아마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보고 싶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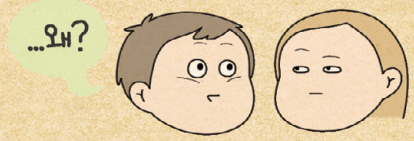
재밌는 이야기엔
배꼽이 빠지게 웃고,



기구한 사연엔
눈물을 흘리며
졸겁게 보고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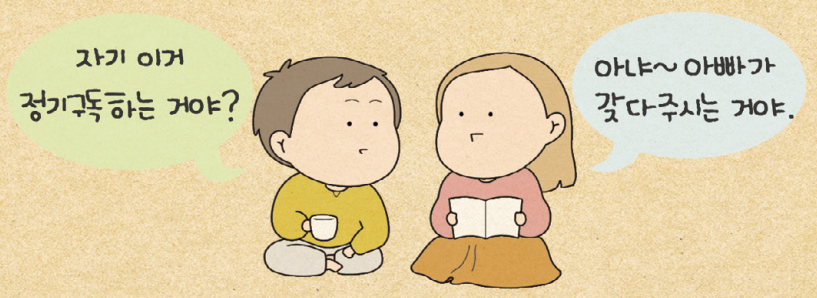
어느 날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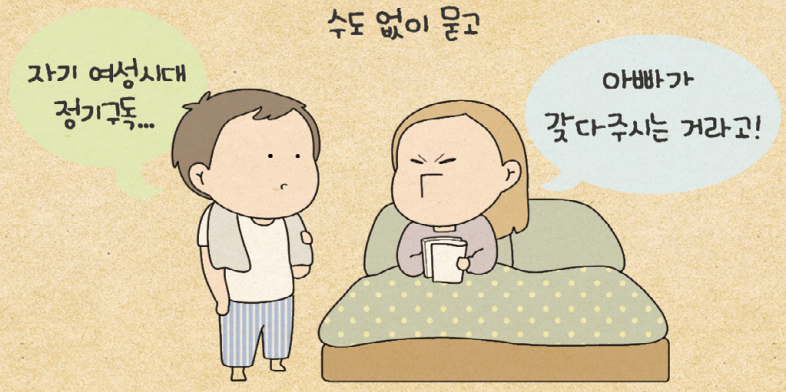


제 남편은 건망증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결혼생활 5년 동안



수도 없이 묻고



수도 없이 대답하는 통에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내 말에 귀 기울이지를 않는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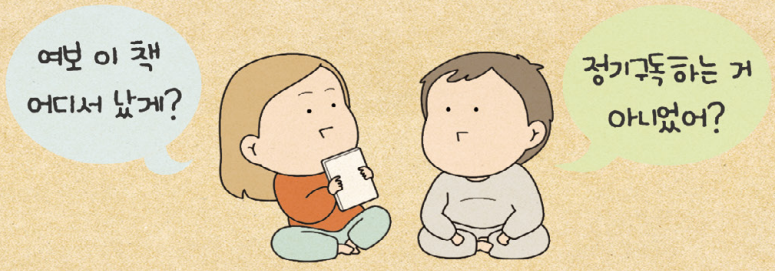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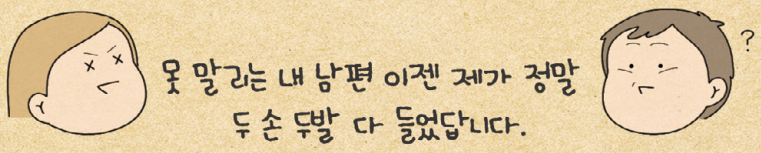
천성이 다정하고 착한 남편이기에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웃으며 넘기려고 해요.

얼마 전엔 제가 먼저 물었었습니다.





못 말리는 내 남편 이젠 제가 정말
두 손 두발 다 들었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승부하다

IBK기업은행 화성송산지점 거래고객
㈜성화에스티 이경섭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스탠더드 규격 제품은 철강 분야의 혁명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인력도 반으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제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납기일도 빨라졌기 때문이다. 성화에스티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성화에스티는 철판규격정밀생산 전문 업체다. 반도체와 기계 자동화 설비, 금형, 산업 기계 등의 분야에서 1차 소재로 쓰이는 스틸 종류 3000가지, 알루미늄 1000가지, 스테인리스 1000가지, 자동화 라인에 쓰이는 L브라켓 900가지 등 총 6000여 종의 철판을 생산한다. 특히 '후판'이라고 불리는 철판이 성화에스티의 주요 생산품이다. 당진의 현대제철과 광양의 포스코에서 공급받은 대형 철판을 가공해 3000가지 스탠더드 규격제품을 만든다. 이 제품들이 자체 공급망인 전국 31개 대리점을 통해 1만 5000개 기업에 제공된다.

"수천 가지 종류의 스탠더드 규격 제품을 만들어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대리점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대리점에서는 납품받은 제품을 저희가 제공한 특허 기계로 커팅만 하면 정밀도 높고 정확한 사이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이는 전국 기업에 제공되어 다양한 부품을 만드는 2차 소재로 쓰입니다."



현재 성화에스티는 화성 마도 외에 6개의 공장을 비롯해 전국에 31개 대리점을 두고 있고 총 3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두 번째 규모의 철판규격정밀생산 업체로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지금의 성화에스티가 있기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공작 기계를 구입하여 1인 창업을 시작한 이경섭 회장은 목공 기계 제작, 세라믹 기계 제작, 자동차 자동화 라인 제작 사업 등 여러 사업을 거쳤다. 목공 기계 제작과 세라믹 기계 제작 사업은 중국 제품이 들어오면서 가격경쟁력에 밀렸고 자동차 자동화 라인 제작 사업은 일부 자동차업체가 무너지면서 여파가 있었다. 그러던 중 철판규격정밀생산 분야를 접하게 되었고 이 사업이야말로 어떤 주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생각에 뛰어들게 되었다.

"2007년에 소재 사업에 뛰어들어 1년 동안 장비 개발에 매달리고 2년째부터 대리점을 오픈시켰어요. 시중에서 기계를 살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그





동안 축적된 기술력으로 스탠더드 규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직접 개발하여 12종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규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대리점을 모집해 특허받은 다양한 장비를 넣어주고 AS까지 해주면서 성화에스티는 승승장구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의 자리에 있는 이경섭 회장이 회사를 이끌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연 사람이다. 그래서일까. 회사를 운영하는 약 15년간 이경섭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단 한 명의 정리해고가 없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직원일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고 밀어주며 배려한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회사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부터 노숙자 단체 지원, 쌀과 김장 기부 등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또한 화성상공회의소 의원이자 이노비즈협회 부회장, 마도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마도장학회 임원, 마도농협 이사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화성송산지점 이대원 지점장은 "성화에스티는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표준규격 정밀생산 업체로서 처음 마도면에 공장을 세울 때부터 공장이 여섯 개로 늘어난 지금까지 IBK기업은행과 돈독한 우정을 쌓아오고 있다"고 인연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더욱 사세가 확장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IBK기업은행 화성송산지점 이대원 지점장(왼쪽)과 ㈜성화에스티 이경섭 대표

㈜성화에스티 이경섭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실패를 발판 삼아 끊임없이 도전하라.
2.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3. 기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경영.

㈜성화에스티

대 표 이경섭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북길 12-17
전 화 031-354-8304
홈페이지 www.seoungwhast.co.kr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정형외과 분야의 세계 NO.1을 꿈꾸다

IBK기업은행 서초동지점 거래고객

연세오케이병원 한희돈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연세오케이병원은 6개 학과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숙련된 의료진이 최신 장비를 이용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치료하고 재활까지 책임진다. 업계 최초로 내시경 최소침습술을 도입해 환자의 수술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연세오케이병원이 척추·관절 분야 세계 최고를 꿈꾼다.

연세오케이병원은 2015년 정형외과의원으로 개원해 현재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총 6개 과목을 진료하며 척추·관절 전문 병원으로 명성을 쌓아나가고 있다. 연세오케이병원이 척추·관절 전문 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숙련된 전문의와 최신 의료 장비, 그리고 첨단 시술을 통해 차별화된 진단 및 수술 방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세오케이병원만의 가장 큰 차별점은 환자에 따라 맞춤형 진료를 하기 위해 다학제(多學際) 협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총 11명의 전문의가 한자리에 모여 환자의 증상을 분석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 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면 연세오케이병원만의 전문적인 치료가 뒤따른다. 어깨부터 발까지 모든 척추·관절질환을 내시경 최소침습술을 통해 시술하고 있는 것은 연세오케이병원의 자랑이다. 내시경 최소침습술은 1cm 미만의 작은 구멍으로 모든 치료를 완료하기 때문에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도 합병증 걱정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이다. 내시경을 이용하면 MRI 등 영상 장비로 보이지 않는 병변도 눈으로 직접 보며 치료할 수 있어서 더욱 효율적이고 시술 시간도 짧다.

특히 디스크 환자는 '비침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 빠른 치료와 회복을 돕고 만성협착증 환자는 '양방향 내시경술'로 수술 부담을 해소했다. '비침습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시술'은 국소 마취 후 꼬리뼈에 작은 구멍을 내고 직경 2mm 내시경을 삽입한 뒤 MRI에서 보이지 않았던 신경에 유착된 디스크를 고배율 카메라로 직접 살피면서 유착 신경을 박리하고 돌출된 디스크를 녹이는 치료 방법이다. 이는 척추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만 제거하기 때문에 평균 시술 시간도 30분 내외로 짧고 당일 치료 후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이 빠르다. '양방







향 내시경술'은 수술 부위를 반드시 절개해야만 했던 수술방법에서 벗어나 2개의 포털을 통해 내시경 카메라와 도구로 치료하는 고난이도 수술법이다.

지난 10월 12일 척추센터 하지수 원장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척추학회에 특별 초청받아 전 세계에서 모인 척추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양방향내시경 수술시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는 우리 의학계의 쾌거라 할만하다.

척추 및 어깨, 무릎 등 다른 관절 부위에 비해 전담 의료기관이 희소한 주·수부 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연세오케이병원의 특징 중 하나다. 손과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주·수부 환자의 치료 또한 관절경으로 진행되는데, 직경 1mm의 초미세 장비를 삽입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부분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단부터 수술, 퇴원까지 하루에 끝마칠 수 있어 환자들이 부담없이 수술을 결정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병원



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HSS처럼 연세오케이병원도 정형외과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서초동지점 하용택 지점장은 "연세오케이병원은 최고의 실력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의료진들이 환자의 치료 및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칭찬하며 "환자 중심의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위해 병원을 확장하며 인연을 맺은 연세오케이병원이 앞으로 지역사회 거점 병원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연세오케이병원이 세계 최고가 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연세오케이병원 한희돈 대표와 직원들

연세오케이병원 한희돈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환자를 속이지 마라.
2. 의사는 최고의 진료로, 직원은 친절로 환자를 대하라.
3. 실력 있는 의료진을 영입하라.

연세오케이병원

대 표 한희돈
전 화 031-848-0885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07, 2층
홈페이지 http://ysok.co.kr/orthopedics/

코너 속 편지

장용의 단·필·충
81 파란만장 해군 생활
85 추억 만들어주신 소대장님
88 별☆은 내 가슴속에

사랑탐구생활
93 우정일까? 사랑일까?
99 불도저 사랑

주말엔 투유
103 아내가 될 너에게
105 엄마가 아기에게



일러스트 | **조신애**

장용의 단·필·충

파란만장 해군 생활

김동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필승! 오랜만에 외쳐보는 44살 해군 예비역 하사 김동헌입니다. 부산에 사는 저는 군번이 두 개인데 재입대를 한 것은 아니고 '복무 전환'을 신청하여 상병에서 하사로 재임관한 예비역 하사입니다.

입대의 시작은 룸메이트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진해입니다. 해군병 물품의 절반이 보급되는 곳. 진해 토박이로 자란 저는 당연히 육군 입대는 생각해본 적이 없고 군대는 무조건 해군이라 생각했는데 대학교 1학년 1학기 끝내고 바로 입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을 같이 쓰던 룸메이트가 여름방학 직전 갑자기 "나, 해군 입대할 거야. 병무청 가서 신청하려고~"라고 하는 말에 질 수 없다! 나도 간다! 바로 학교 땡땡이치고 병무청에서 동반 입대 신청. 룸메이트는 8월 해군병 426기로 입대, 저는 9월 7일 해군병 427기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98년 갑판병으로 병과 교육 마치고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경남함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며 함수갑판에서 '눈물이 차올라서 고갤 들어 또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으면서' 이등병 시절을 보내고 일병, 상병 하나씩 달다보니 어깨에 살짝 뽕이 차고 사재군복 당가리도 입게 되던 어느 날, 제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날도 별생각 없이 행정실 앞을 지나가는데 〈복무 전환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문이 붙어 있더군요. 그 순간 외출 외박 때마다 세뇌당하듯 들어왔던 압박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군인 경찰 집안이다. 너도 웬만하면 말뚝 박아라."

"너는 군인 체질이야. 어려서부터 수박만 보면 헬멧 만들어서 쓰고 기다란 것만 보면 총이라고 들고 골목 지켰잖아. 이참에 그냥 말뚝 박아."

"말뚝 박아!"

'그래 지난 2년간 받지 않았다던 복무 전환 신청을 지금 굳이 내가 병장 진급을 앞둔 이 시점에 받는다는 건 어쩌면 운명일지도 몰라.'

그 어떤 운명의 끌림이었는지 갑자기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행정병에게 상의했고 그 행정병도 행정병 생활에 질렸다며 같이 지원하자 우리끼리 도원결의를 다졌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였죠.

해군은 기수 문화가 강한데 당시 저에게는 2기수 선임이자 저를 아주 괴롭히던 페인트병 최 상병이라는 작자가 있었는데, 아, 그도 행정병 복무 전환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다 같이 합격해버린 겁니다. 행정병 김 상병, 페인트병 최 상병 그리고

저까지 99년 11월 부사관 갑판병과학교로 입교해서 하후생으로 일명 빨간 갈매기를 달고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최 상병이 선임이어서 깍듯이 대해 주었는데 이게 계급이 같아지니 슬슬 제가 이병, 일병 때 받았던 괴롭힘이 생각났고 저희 둘 사이엔 알게 모르게 기 싸움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자율학습 시간이었는데 온습실에서 제가 말하는 소리가 좀 거슬렸는지 최 상병이 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더군요.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최 상병이 마치 후임에게 말하듯 고함을 치더군요.

"얌마, 조용히 하라는 말 안 들려? 시끄럽다고오! 내 말 안 들려?"

그 순간 저도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들려! 들린다! 다 들린다고 임마! 근데 너는 같은 계급끼리 왜 자꾸 명령질이냐?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해? 야, 오늘 나랑 한판 붙자. 나와! 한판 붙자고 붙어."

저의 도발에 동기들은 저를 말리기 시작했고 최 상병은 크게 붙잡거나 말리는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아놔~ 진짜 저걸 확 그냥, 야~ 놔봐~ 나 좀 놔보라고! 저거 손 좀 봐주게!"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너 오늘 완전 재수 좋았다. 얘들이 안 말렸으면 너 오늘 내가 완전 발라버리는 건데. 아 놔. 너 조심해라 앞으로"라며 제가 일으킨 폭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로 최 상병은 저를 동기로 인정해주었고 서로 터치 없이 3개월의 후반기 교육을 모두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경남함. 제가 일반병으로 복무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함정에 근무하는 대부분을 알고 있고 장비 위치, 훈련장구 등이 너무 익숙해서 저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경남함으로 전입신고를 하러 간 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오더군요. 직별장부터 중사, 선임 하사들까지 심각하게 저에게 지시했

습니다.

"김동헌 하사는 오늘부터 갑판병들과 말을 하지 않는다."

이유인즉 그때까지 저의 일반병 선임들이 전역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당시 병들 사이에서는 초임 하사에게 높임말을 쓰지 않는 악습이 있었고, 저 역시 상병 때 초임하사에게 '다, 나, 까' 대신 '요' 자로 말하며 까불었는데 이제 제가 바로 그 초임하사가 되었고 제가 까불었던 초임하사는 저의 선임하사가 된 것입니다.

위로 아래로 참 어려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경남함의 퇴역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폐선 요원으로 함선에 남아 경남함의 최후를 지켜줬습니다.

이후 해군에서는 힘들기로 소문난 평택함으로 전입해서 만만치 않은 군 생활을 이어 가게 됐지만 병으로 복무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선임들의 인정을 받으며 제법 괜찮은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군 생활에 지쳐 갈 때쯤 미련 없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마지막 군 생활은 상륙지원대에서 LCVP(상륙지원정) 정장을 마지막으로 2004년 1월 4일 해군하사 만기 전역, 사회의 높은 벽에 방황하다 2005년 국립해양조사원에 공무원 특채로 입사해 지금은 부산 경찰청 교통과에서 근무 중입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특이했던 해군 생활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망망대해에서 첩첩산중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기에 편하게 쉬고 일하고 이 글을 쓰며 그리운 군 생활을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편안하세요.

장용의 단·필·충

추억 만들어주신 소대장님

박요한 | 충남 부여군 규암면

22사단 53연대 수색중대를 병장 만기 전역한 올해 38살 된 박요한입니다. 저는 군대 생각하면 정말 즐거웠고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우선 막내 시절, 이등병 때 저는 체력이 약해서 구보를 뛰면 항상 꼴찌였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군장을 메고 산행하는 첫 훈련은 지옥이었죠. 안 좋은 체력에 허리 부상마저 있던 저는 1052고지에 군장을 메고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절반도 못 올라가서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 되었고 분대원들이 제 군장에 있던 물품을 모두 나눠 들고 저는 맨몸으로 올라가야겠습니다. 체력은 약해도 자존심이 강했던 저는 분대원들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근성 없고 체력 떨어지는 저 자신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훈련 후 화장실에서 몰래 울며 다짐했죠.

"체력을 키우자! 다시 태어나자!"

그 후로 매일 턱걸이, 달리기,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다들 누워서 TV 보고 쉴 때 저는 저 자신을 단련하며 다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했고, 이등병 시절 0개 했던 턱걸이가 일병쯤 됐을 때는 부대 내에서 망신당하지 않을 만큼, 병장이 됐을 때는 허리 튕기지 않고 30개씩 할 정도가 됐습니다.

병장이 되어 처음 훈련받았던 그 산에 다시 올랐을 땐 막내의 군장까지 두 개를 메고 정상을 올랐고, 소대장님이 "박요한, 설욕전 제대로 했네! 다시 태어난 박 병장, 우리 '빡요'에게 일동 박수!" 그때 기분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 소대장님과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함께 산에 숨어서 오들오들 떨며 전투식량을 먹고 있었습니다.

"빡요! 너 '파이어 이글'이 뭔 줄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파이어 이글이란 말이야. 우리 부대에 어떤 좌표를 알려주면 상급부대에서 그곳을 독수리처럼 공격하는 거야. 우리가 적의 탱크를 찾아서 좌표를 알려주면 위에서 그 좌표로 폭탄을 투하, 팡~ 공격 개시!"

"오 그렇습니까?"

"응, 잘 봐. 내가 지금부터 '파이어 이글'을 신청할 테니까."

"에? 지금요? 여기 지금 적군이 없는데?"

"알아~ 알아~ 잠깐만 잠깐만~ 어, 여보세요? 응, 나야. 여기 좌표가 그러니까 보자. 어디 어디 산 밑인데. 응응 그 폭탄 좋지. 어~ 그것도 좋아. 최대한 화력 쎈 걸로. 넉넉하게. 오케오케~ 응~ 그래그래."

"소대장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전화는 누굽니까?"

"장난이라니? 지금 막 좌표가 전달됐다. 제군은 당장 산 밑으로 내려가 검은 승용차 차량번호 1588번과 접촉, 은밀하고 위대하게 명령을 수행하도록!"

"에? 진짜요?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어리바리했던 저는 이게 다 뭔 일인가? 대체 무슨 폭탄을 차량으로 배달하나 의아해하며 소대장님이 말한 곳으로 내려갔고 도착해보니 정말 검은 승용차에서 한 여성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대장 여자친구예요. 표정을 보니까 신병이신가 보네. 반가워요. 이건 주문하신 파이어 이글~ 작전 잘하세요."

군대 음식만 먹다가 사제음식을! 그것도 훈련 중에 산에서 몰래 먹는 떡볶이에 어묵에 순대라니 그건 정말 제 인생 최고의 맛이었고 최고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최고의 작전이었던 것이 그날 새벽, 저는 그 음식을 먹고 심신의 컨디션이 최고를 찍은 나머지 새벽에 전투화를 벗고 야간투시경 하나와 무전기 하나로 적의 기지에 몰래 잠입해 탱크를 모조리 찾아냈고 그걸로 우리 부대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값진 추억을 만들어주신 이충무 소대장님. 그때 전역하시면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공부만 할 거라며 전역하셨잖아요. 근데 전역하실 때 앞으로 보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왜 시원하게 지내라고 에어컨 사주고 가셨습니까? 그때는 14년 동안 제가 이렇게 충무형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연락 안 할 거란 말도 농담인 줄만 알았는데 전역하면 제가 월 5백 이상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충무 소대장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충성!

장용의 단·필·충

별☆은 내 가슴속에

박상흠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80년대 저는 산업역군이 되고자 공고 토목과, 공대 토목과에 진학, 4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해서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토목인(?)으로 인정받아 후반기 교육도 받지 않고 일찌감치 경기도에 있는 모 군단 예하 공병여단으로 배치되었죠.

그런데 군단 사령부에서 잠시 대기하던 중 지나가던 장교가 물었습니다.

"신병들이 왔구먼. 혹시 타자 칠 줄 아는 병사 있는가?"

두어 명이 손을 들더군요. 저도 덩달아 뒤늦게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때 저는 타자를 전혀 칠 줄 몰랐거든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ㅂ'치고 'ㅏ'에 'ㄱ'치면 '박' 대충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니면 뭐 또 새로 배우면 되고~.'

잠시 후 사무실로 이동하니 이번엔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각자 자기 이름과 주소를 쳐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타자기에 종이를 어디로 집어넣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우왕좌왕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야! 넌 안 되겠다. 나가."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신병들도 거기서 거기였나 봅니다. 공병 주특기와 아무 상관 없이 제가 군단 사령부 작전처 행정병으로 선발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군대 생활. 사회에서 사단은 들어봤지만 군단은 로마군단 정도 알았던 제가 군단 사령부 작전처에서 삽 대신 타자기를 분신 삼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군인 정신이다! 알겠나?"

선임의 인자한 가르침에 행정병으로 보직 변경한 후 한 달 만에 타자 마스터. 사무실에서 문서 타이핑하고 손님들 차 대접하고 서류 정리 정돈하는 참모님 당번병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군단의 작전참모는 대령으로 장군 진급 예정자의 보직인데 앞선 17, 18기 두 분 모두 진급하시고 새로 부임하신 분은 한 기수 앞당겨 육사 20기 대표 화랑 출신의 이현부 참모님이었습니다. 참고로 대표 화랑은 생도 시절 학업 성적과 리더십이 가장 우수한 생도 한 사람을 뽑아 육사 상징탑 동판에 이름을 새긴다고 합니다. 참모님은 부임 후 첫 일정으로 '빨리 친해지려면 옷을 벗고 만나야 한다'며 작전처 장교 20여 명과 부대 근처 시내 대중목욕탕으로 이동, 함께 목욕한 후 부대로 돌아와 취임 인사를 하고 부서별 현황 사항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장교들에게는 엄격하셨지만 사병들에겐 자상하고 한없이 부드러운 분이었고 제가 병장 휴가를 나올 땐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당시 제 월급보다 많은 5천 원을 주면서 "정종 사 가지고 가서 부모님 뵙고 나 대

신 꼭 감사의 큰절을 드려라" 부탁하셨고, 고속버스 대신 열차를 그것도 중간 칸에 타라고 말씀해주시며 휴가길 안전까지 신경 써 주셨습니다.

참모님의 부하 사랑과 따스한 격려 덕분에 군 생활 열심히 매진해서 저는 군단장 표창까지 받게 됐고 그때 익힌 삶의 태도와 마인드는 훗날 제 삶의 긍정적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해 12월, 참모님은 장군으로 진급하며 부대를 떠나셨습니다. 저 역시 전역을 얼마 안 남긴 1월 초였고, 일과 후 내무반에 쉬고 있는데 본부대 당직병이 헐레벌떡 뛰어오더군요.

"박 병장님, 전화 왔습니다!"

"누군데?"

"그게 누구냐고 물으니까."

"물으니까?"

"자꾸 '나, 이 장군이야!' 하지 말입니다."

"뭐? 이 장군?"

그 길로 달려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책임(=군단구호) 전화 받았습니다!"

"어~ 박 병장 나 작전참모야! 자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지? 시내 고깃집에 얘기 해뒀으니까 후임들과 함께 회식하도록 해. 전역 축하하네."

"책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참모님의 보살핌 속에 전역했고 복학 후 졸업해서 건설 회사에 입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중 군대에서 경험했던 사무직의 매력을 잊지 못해 사직서를 내고 서울로 상경 광화문 근처 항공 관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일하는 내내 참모님의 무운을 빌었고 중장 진급과 함께 7군단장에 부임하셨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는데 축하 인사를 채 드리기도 전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군단장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

부대 순시를 가던 중 헬기 추락으로 탑승자 10명 중 7명 순직. 3명 부상, 추락 중에도 군단장님은 "민간 부락을 피하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사고 현장에서 대원들은 군단장님을 보호하려 겹겹이 몸을 껴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헬기는 과수원으로 추락했고 생존 부조종사는 주민들이 나타나자 "배터리를 제거해야 한다. 군단장을 살려야 한다" 절규한 후 실신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저는 회사 산악회 행사로 백운산을 가던 길에 차 안에서 돌아가며 노래를 불러야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 차례에서 당시 복무했던 부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모두가 흥겹던 그때 저는 조심스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있겠지요. 저 역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분의 영결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저기 보이는 부대가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이고 그때 모시던 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는 북받치는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고 갑자기 숙연해진 침묵을 깨고 사장님께서 "오늘은 그냥 조용히 묵념하면서 가지"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참모님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셨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애도의 기사와 함께 뒤늦게 밝혀진 수많은 미담이 쏟아졌습니다.

〈야전에서만 32년 '청렴 강직 사령관'으로 '순수 무욕의 길'을 걸은 참군인〉



〈기동작전의 대가! 기계화 부대의 작전 1인자!〉

〈대대장 시절, 부하 병사의 실수로 일어난 화재를 당시 중령 월급 2년 치 사비로 대신 변상〉

〈군단장 첫 월급, 꽃동네 헌금, 불우이웃 도와…〉

〈오로지 국가와 군을 위해 충성했으며 남다른 부하 사랑으로 장병들의 존경을 받음〉

그 후로 매년 2월이 되면 장군 묘역에서 추모식이 거행되는데 저는 가끔 그리울 때 혼자 조용히 찾아뵙고 돌아옵니다.

대한의 남아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군 생활. 누군가에겐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그분이 있었기에 인생의 좌표와 직업까지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되신 참모님. 참모님은 제 가슴에서도 별이 되어 오늘도 반짝이고 있습니다.

사랑탐구생활

우정일까? 사랑일까?

이미현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2019년 연말 강원도 여행을 갔다가 강릉에서 부산 가는 완행열차가 사라지기 전에 타보려고 부산행 열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제가 이용하던 게스트하우스에 전화하니 너무 낡아서 폐업했다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난 거기만 믿고 예약도 안 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 아직 오픈도 안 한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해 주셔서 거기서 묵었습니다.

다음날 부산에 지인이 소개해준 감천문화마을로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가는데 기사님이 알려준 곳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오면서 본 간판에 눈이 끌려 바로 내려 그 국숫집에서 국수를 먹고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다가 큰 안내 표지판을 자세히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주 낯선 남자 목소리 "두 유 노우 잉글리쉬(Do you know english)?"라는 말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순간 주변을 둘러

보았는데 건너편에 파란 눈의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주변엔 우리 두 사람뿐이었어요.

"예스, 어 리들(Yes, a little)."

그러나 저의 영어 실력은 말하기는 물론이고 듣기 쓰기 모두 아주 조금의 수준이었답니다. 하지만 어찌 어찌해서 '감천문화마을에 간다, 너는 어디 가니?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대화를 했죠. 그래서 동행이 되었지만 저는 감천문화마을이 처음이었고 서로 말이 안 통하니 할 말도 없는데 갈림길이 나오면 손가락으로 이쪽저쪽을 가리켰고, 그 프랑스 사람도 그냥 저를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감천문화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저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일몰을 보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같이 가겠느냐고 하니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나라 대서양 연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그 외국인은 부산 다대포의 강한 찬바람과 매서운 추위에 그 큰 코가 딸기코가 되고 연신 콧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날따라 일몰도 그다지 멋있지도 않았고 너무 추워 얼른 바닷가를 떠나고 싶어 하는 눈치라 저녁밥 먹으러 갈 건데 너는 무엇을 할 거냐고 물으니 자갈치시장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대포해수욕장에 가기 전에 지하철 역사 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며 서로의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이태원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예약했다며 예약 사이트를 열어 사진을 보여주면서 싼 거야, 비싼 거야 물어보는데 한국 게스트하우스는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곳에만 묵어본 것이 전부여서 뭐라 말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자갈치시장을 둘러보는데 포장마차 같은 곳에 들어가고 싶다고 관심을 보이네요. 거기서 회를 먹는데 막걸리는 서울에서 맛보았다고

소주를 한 잔 맛보고 회도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계속 물어보았는데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서 제대로 말도 못 해주었죠. 한데 이 외국인 깻잎에 된장에 마늘, 고추까지 싸서 너무 맛나게 인상 한 번 찌푸리지 않고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려고 장소를 옮겼어요. 돌아다니다 보니 편지 쓰기 행사가 있더라고요. 6개월 후나 1년 후에 도착하는 편지인데 그 친구한테 저한테 쓰라고 말하긴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곳 직원한테 안내를 부탁했더니 딸 나이 정도의 직원이 저 보고 대단하다고 엄지 척을 해주더라고요.

서울에서 안내해 줄 사람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답니다. 무슨 용기인지 배짱인지 "그럼 서울에서 내가 가이드해 줄까?" 했더니 좋답니다.

걸어서 그 친구가 구글을 이용해 숙소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했지요. 나도 해외에 나가 혼자서 저렇게 여행하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지요.

그날 저녁 각자의 게스트하우스로 가고 서울에서 다시 만나서 안내해주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한국의 유심을 교체하지 않아 오로지 연락할 방법은 이메일뿐. 제가 신안 섬티아고에 들렸다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는데 기상이 안 좋아 배가 출항을 못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을 보지 않지 뭡니까. 계속 단답형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친구는 1월 2일에 서울로 올라와 5일 새벽에 출국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보여 주었던 이태원의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인터넷으로 찾아 상호는 기억을 못 하고 눈으로 보았던 사진으로 확

인하고 전화번호를 찾으니 없어요.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예약해야만 전화번호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114로 전화를 했지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전화하니 받지를 않아요. 두세 번 해 보고 말았지요. 한데 저녁때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게스트하우스 주인이랍니다. 거기에 혹시 부르노라는 프랑스 사람 머물고 있느냐고 하니 그렇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그 친구에게 전해 줄 것이 있는데 메일을 보지 않아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 전화했노라 했더니 게하 주인 젊은 여자분이 오늘 거기에 가는 날이 아닌 데 일부러 가서 부르노와 통화를 할 수 있게 해 준답니다. 저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죠. 저녁에 전화를 연결시켜 주는데 내일 아침 10시에 이태원역 몇 번 출구에서 만나자고 어떻게 어떻게 말을 했지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게하 주인한테 다시 확인을 부탁했답니다.

다음날 이태원역에서 만나 같이 서울의 동인시장, 광장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말도 안 통하는데 10시간을 오로지 걸어서 서울을 구경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한국의 매운 음식도 너무 잘 먹고 전통차도 잘 마시네요. 한국의 찰진 밥에 반해서 전기압력밥솥을 사야 한다고 해서 중고 시장을 다 돌아다녀도 그 친구가 찾는 사이즈의 전기밥솥이 없어서 전자마트 청구점까지 걸어가서 밥솥을 사서 갔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어 이태원으로 돌아와선 안내를 그 친구가 하고 이태원의 밤거리는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카페에 앉아 난 와인 한 잔, 그 친구는 맥주 한 잔을 마시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한 시간을 보내다 저녁에 식당에서 그 친구가 전부 주문한 음식을 먹으며 내 카카오톡 아이디를 가르쳐주며 프랑스에 돌아

가면 카카오 앱을 다운받아 연결하라고 알려주고 10시쯤 헤어져 집으로 왔죠. 그 친구는 다음 날 새벽 5시쯤 공항으로 가서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마트에서 계산을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 국제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 그 친구였어요. 카톡 보냈는데 보았느냐고. 아직 못 보았다고 나중에 보고 다시 연락하자고 급한 마음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껄이고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시작된 카톡의 페이스톡으로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한답니다. 시차가 8시간이다 보니 나는 잠들기 직전이고 그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점심 장사가 끝나고 본인의 식사 시간을 쪼개어 매일 전화를 한답니다. 영어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면 일 분 정도의 대화면 되는 내용을 우리는 10~20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서로 말을 알아들으려고 엄청 애를 쓰지요.

그러기를 2년 8개월째. 한국에 다시 오려고 2021년 3월에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한국이 가장 심한 코로나를 겪는 상황이라서 오지를 못하고, 나는 언제 올 거야 묻기만 하고 그 친구는 "I don't know"만 반복하다 결국 지난 6월에 우리 집에 와서 22일을 지내고 프랑스로 돌아갔답니다.

나는 거실 방에서 자고 그는 침실에서 자고, 마침 제가 자전거 타다 넘어져 손목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친구가 살림해주고 병원에 같이 보호자로 가 주고 운전기사 역할까지 했답니다.

다행히 제가 깁스를 하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지인들이 집으로 초대해서 한국 가정집의 식사를 세 번씩이나 경험하게 하고, 비빔밥을 좋아한다는 친구의 말을 들은 지인은 이 더위에 온갖 나물을 볶아 비빔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서 가져다주고, 봉화에 사는 지인은 집으로 초대해 재워주고 밥해 주고 묵은김치까지 포장해 주었답니다. 그 김치는 김치를 좋아하는 친구가 프랑스로 가져갔는데 맛이 그 맛이 아니랍니다.

한국에 오면 자전거 같이 타고 한강에도 가고 수리산도 올라가고 한라산도 올라가자고 했던 약속들은 제가 깁스를 하고 있는 바람에 하나도 못 지켰지만, 부르노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리산에 반해서 구글 하나 믿고 혼자 세 번이나 다녀오고 제주도 한라산도 혼자 잘 갔다 왔답니다. 제주도 가며 같이 가면 안 되냐고 쳐다보던 눈빛이 선하답니다.

혼자 해외여행 다니며 가정집에 초대받는 일은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주변에서 만리장성은 쌓았냐고 묻는데 손도 안 잡아 보았다고 하면 믿을까요? 저도 이번에 정말 남자하고도 이렇게 편하게 한집에서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남자와 여자도 친구로 가능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는 친구일까요? 사랑일까요?

참고로 저는 올해 환갑이고 그 친구는 57세, 서로 자녀를 둔 싱글맘, 싱글 대디랍니다. 2년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었고,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보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느라 머리 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매번 한답니다.

그 친구 돌아간 지 이제 한 달. 이제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도 600km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려고 티켓팅을 해 놓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답니다. 혼자서 처음으로 유럽에 가는 데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있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도전해 봅니다.

사랑탐구생활

불도저 사랑

홍동식 | 서울 노원구 동일로

친구들은 아무도 몰랐다. 96년 10월 3일 결혼한다고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알렸을 때 난리가 났다. 도대체 신부가 누구냐고.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친구들과 지인들은 신부 얼굴을 처음 볼 수 있었고 나를 아는 수많은 모임, 학교, 사회 구성원들은 이유를 물었고 궁금해했지만 내가 31살에 결혼하기까지 우린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집사람을 처음 만난 것은 내가 25살, 집사람이 20살이었다. 나는 군 제대 후 영어학원에서 알바 겸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었고 집사람은 그 당시 다른 학원 수강생이었는데 마침 우리 학원 수강생 친구를 따라 잠시 들렸을 때 나를 만난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녀가 들고 있던 교재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여 지하철역까지 배웅해주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당시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었고 집 전화번호를 서로 묻지도 않았었다.

그 후 계절이 봄에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기 전 어느 날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그것도 내 이름도 모르면서 당당히 학원 사무실로 찾아와 얼굴은 까만 편이며 못생겼지만 목소리가 좋은 사람으로 직원 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우린 처음으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게 되었고 20살의 그녀와 그때부터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그녀의 아버님께서는 군 장교 출신이시라 그런지 자식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훈육을 하고 계셨다. 즉 통금시간이 너무 엄격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은행원이었는데 회사에서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야 되며 어쩌다 연수나 회식이 있는 날은 지점장이나 팀장이 미리 전화를 드려서 아버님께 양해를 구해야 가능하였으며 주말이면 20분 거리 교회 가는 것은 승낙하셨는데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그러니 우리의 데이트 시간은 자동으로 은행 업무가 끝나면 집으로 가는 코스의 짧은 시간과 교회 끝나면 집으로 가는 시간이 전부였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녀를 좀 더 얼굴을 보기 위해서 1년 넘게 그녀가 다닌 교회에 다니기도 했으며 어쩌다 주말에 큰맘 먹고 데이트를 하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교회에 안 가고 커피숍에서 차 마시는 것이 전부였으며 아버님께서 1년에 한두 번 출장이라도 가시는 날에는 큰맘 먹고 쫄면이라도 먹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 없는 추억 중 하나는 우리 집과 그녀 집은 강서구와 노원구였는데 전화가 와서 보고 싶으니 집 앞으로 잠깐 올 수 있냐고 해서 좌석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2시간 거리를 달려가서 15분인가 보고 헤어져 집에 도착했는데 또 잠깐 올 수 없냐는 전화에 또 2시간을 달려가서 잠깐 보고 헤어졌던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지금도 남아있다.

그렇게 긴 연애 기간 6년을 보내는 동안 난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그녀는 우리 집에 와서 짧은 시간 어머니께 인사도 했지만 내가 어르신들을 찾아뵙기로 당시 그녀와 약속해본들 반복된 연기로 도통 그녀 집에 인사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5번이나 약속이 반복되던 어느 날, 그녀는 또 용기가 안 나서 아버님께 말씀을 못 드렸다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한 날, 난 참을 수가 없었고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며 바로 집으로 쳐들어가겠으니 아버님께 당장 전화 드리라고 말하였고 그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처음으로 화를 낸 내 모습에 놀랐는지 심호흡 후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고 나는 직접 그녀의 아버님께 전화상으로 인사를 드린 후 오늘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자 한참 후 아버님께서는 오라고 하셨다.

그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많은 술을 마셨다. 아버님께서는 처음에 담근 술 큰 거 한 병과 술잔은 1개를 준비하셨고 안주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후 소주 2병, 양주 1병을 계속 마셨는데 술잔은 한 개만 사용했기에 아버님께서 마시면 나를 주시고 나는 바로 마시고 또 드리고 그렇게 똑같이 나눠 마신 후 아버님께서는 취기가 오르셨는지 이제 그만 마시고 저녁밥을 먹고 가라고 하셔서 예비 장모님께서 차려주신 밥 한 그릇을 다 비우자 이제 가보라고 하셔서 집을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집에 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다음날 잠에서 깨고 나니 내 방이었다. 그 후 나는 인사드린 지 3개월 만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가운데 상견례와 결혼식까지 할 수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연애 스토리였



고 있을 수도 없는 사연이겠지만 순박한 우리 부부는 그렇게 결혼 후 26년이 지난 현재 대학생 자녀(1남, 1녀) 둘을 두고 예쁘고 맘도 착한 아내와 함께 늘 편안하게 살고 있다. 요즘은 세컨하우스에서 농사짓느라 주말이면 구슬땀을 흘리지만 상추쌈에 된장과 사랑을 넣고 행복을 논하고 있다.

그때 밀어붙인 나의 박력을 집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그때 당신이 화를 내고 직진하지 않았다면 언제 결혼했을지, 당신과 과연 결혼은 했을지 모르겠다며 호호 웃는다. 그 웃음 속에 행복이 묻어있어 난 오늘도 사랑을 차곡차곡 적립한다.

주말엔 투유

아내가 될 너에게

최호영 | 경기도 고양시

사랑하는 현정아!

32살인 우리가 연인이 된 지 벌써 11년. 알고 지낸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였으니 서로를 만난 지 벌써 22년이나 되었구나.

코흘리개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가 지금도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나도 가끔 신기하다. 초등학교 때 너는 교정기를 하고 남자애들을 때리고 다니던 말괄량이였고 나는 그런 널 보며 한숨 쉬던 조용한 남자애였지. 서로 너무나 다른 우리였지만 친구들과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뛰어다니며 놀았잖아.

중·고등학교는 같은 학교가 아니어서 자주 보진 못했지만 등교 시간에 버스정류장에선 종종 마주칠 순 있었지. 내가 아침으로 사과 몇 조각을 들고 가면 너는 배고프다며 덥석 뺏어 먹고는 "허리 좀 펴고 다녀!"라는 잔소리와 함께 내 등을 두드려주곤 했어. 당시 만나던 여

자친구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너와 마주치는 바람에 여자친구에게 추궁을 받기도 했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은 줄어들었어. 1년 뒤 나는 입대하게 됐고 무료한 군 생활을 보내던 중 당시 유행하던 SNS를 통해 너에게 다시 연락하게 됐지. 우린 휴가 중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자연스레 호감을 갖게 되면서 내가 너한테 고백했었잖아. 그때 너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지. 그리고 몇 달 뒤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

나는 대학생이고 너는 직장인이던 그때 그 시절. 우린 영화를 참 좋아했어.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면 심야 영화 세 편을 만 원에 볼 수 있는 표를 사서 영화관에서 밤을 지새우곤 했지. 항상 마지막 영화를 볼 때 꾸벅꾸벅 조느라 내용은 거의 기억이 안 나지만 영화를 싼값에 많이 봤다고 웃던 기억과 푸른 새벽 내 손에 닿던 네 손의 온기가 아직도 선명해.

이후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 취업 준비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때,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매 순간 넌 나와 함께해줬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 서로 잠시 떨어져 있던 시기에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굴곡들을 지나 어느덧 우리가 연인으로 함께한 지 11년이 지난 지금, 다음 주면 나는 너의 남편이, 너는 나의 아내가 돼. 조금 과속을 해버린 덕에 16개월 된 귀여운 딸내미가 있는 우리지만 늦게나마 정식으로 부부가 된다는 사실에 많이 두근거리고 설렌다.

32년 인생에 절반 이상을 친구로 지냈고 삼분의 일을 연인으로 함께 보낸 너. 새해마다 서로에게 항상 해주던 말을 지금 너에게 해주고 싶다. 현정아! 내 옆에 있어 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주말엔 투유

엄마가 아기에게

백승연 | 세종특별자치시

우리 아기, 오늘도 집에서 잘 지냈니? 할머니랑 책도 보고 아장아장 걸음마로 산책도 했겠지? 맛있는 맘마도 먹고 오후에는 이불 덮고 코 낮잠도 잤겠지. 가끔은 엄마가 생각나 울진 않았을까 걱정이야.

엄마는 오늘도 하루 종일 네 생각뿐이었어. 육아 책에서는 엄마의 감정을 아이도 다 느낀다며 미안해하지 말라던데 엄마는 출근할 때마다 등 뒤에서 터지는 네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자꾸만 네게 미안해져.

조금이라도 너랑 놀고 싶어서 최대한 퇴근을 서두르지만 요 며칠은 결국 너의 잠든 모습만 봤구나. 고른 숨을 쉬며 깊이 잠든 너의 옆모습, 참 예쁘다.

새벽이면 엄마는 네 곰실거리는 머리카락에 살며시 뽀뽀를 하고 집을 나선단다. 요즘, 매일 새벽에 나오고 저녁 늦게 들어오면서 엄마

가 복직을 너무 쉽게 결정한 건 아닌지 후회가 많이 되는구나. 그 당시엔 할머니께서 감사하게도 먼저 손주를 봐주시겠다며 복직을 권유하셨어. 그래서 엄마랑 너는 할머니 집에서 들어가 지내게 되었지. 할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엄마는 일하러 가고 주말에는 아빠도 집에 와서 마침내 온 가족이 합체하는 거지.

그런데 막상 복직하니 이미 각오한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더 고단하더라. 할머니께 매일 널 맡기고 출근하는 길, 너는 영문도 모르고 엄마와 떨어지니 자지러지게 울고. 할머니는 첫 손주 돌보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 종일 힘들어하시고. 엄마도 아빠랑 떨어져서 낯선 시댁에서 너와 함께 지내려니 하루하루 편하지 않구나. 무엇보다 종일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어.

얼마 안 쉰 것 같은데 직장에서 일은 왜 이리 바쁘고 정신이 없는지. 매일이 실수의 연속이구나.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그저 무능력한 사람인 것 같아 기분이 울적하기도 해. 아빠랑도 주말부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 어제는 말이야, 엄마가 내내 참았던 눈물이 한 번 터지더니 하루 종일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쏟아져서 참느라 혼났단다.

어제 새벽에도 네 잠든 모습을 지켜보다가 집을 나섰지. 운전하고 가다가 하도 피곤해서 잠시 작은 편의점에 차를 대고 들렀단다. 그런데 편의점 주인아저씨께서 엄마를 보더니 따끈한 커피를 한 잔 내려주시는 거야.

"피곤하시죠? 커피 한잔 드세요."

엄마는 얼떨결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제대로 못 한 채 아저씨가 주시는 커피를 엉거주춤 받아서 들고 편의점을 나왔어. 그리고 차 안에서 앉아 커피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 향기가 정말 좋더구나. 컵을 쥔



손에서는 기분 좋게 따스한 열감이 느껴졌지.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를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후드득 쏟아졌어. 아직도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는지.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서 종이컵을 든 채로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그러다 어찌어찌 다시 차를 몰아 출근했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지.

그런데 퇴근길에 다시 아빠랑 통화를 하는데 아침에 한 번 터진 감정이 남아 있었는지 또다시 울고 말았어. 엄마 자존심은 왜 그렇게 센지 그동안 아빠한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참 싫었거든. 그런데 어제는 흐느껴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말했어. 주말부부도 워킹맘도 아직 말도 못 하는 아이를 떼어놓고 일 나가는 것도. 종일 아이 우는 모습이 눈에 어른거려 속상하다고. 한 번에 와다다다 쏟아냈어.

다 말하고 보니 아빠도 똑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 못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차, 싶더라. 아빠 마음에 괜한 짐을 더 얹어준 게 아닐까 걱정했어. 그런데 평소에는 마냥 장난꾸러기 같던 아빠가 엄마 말을 묵묵히 듣더니 참 어른스럽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더라.

"그랬구나. 많이 힘들지? 참 안쓰럽다. 옆에 있으면 꼭 안아줬을 텐데. 주말에 만나면 맛있는 거 먹자."

아빠가 천천히 꾹꾹 힘주어 말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엄마는 조금씩 진정이 됐어. 그리고 훨씬 나아진 기분으로 할머니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단다.

너를 돌보느라 조금은 수척해진 모습이셨지만 어머님도 웃으며 반겨주셨지. 어머님은 너의 일과를 들려주셨어. 오늘 아주 잘 놀고 밥도 두 그릇씩 먹었다며? 네가 도서관에 가서 형아들 책 읽는 걸 구경하고 놀이터에서 축구공을 굴리며 잘 놀았다고 알려주셨어. 걱정하지 말라는 할머니 말씀에 안심이 된다.

지금도 엄마는 곤히 자는 네 옆에서 편지를 써. 오늘도 역시 자는 모습만 보네. 이 귀여운 코, 둥그런 이마, 쌕쌕거리며 쉬는 숨소리, 전부 사랑스럽고 소중하다. 엄마가 앞으로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아마도 시간이 약이겠지. 좋은 사람들, 힘이 생기는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엄마 힘내볼게! 사랑해 아들.

깊어가는 가을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가을이 깊어가는 하늘을 보며 아쿠아반의 동갑내기가 내게 말을 붙였다.

"요새 자전거 타면 너무 좋아.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게 속이 다 시원해져. 아침엔 쌀랑하더니 열심히 밟으니까 땀이 나더라고. 그런데 핸들 잡은 손이 덜덜 떨리데. 날 추워 부담스럽고 움츠러들기 전에 부지런히 운동합시다."

"에휴! 그럼 뭐하냐? 보름만 쉬어봐. 근육 훌쩍 빠져나가지."

자전거 탄 지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막 설렌다는 그녀가 솔직히 부러웠다. 무언가를 향해 설렘이 남아있다는 건 가슴이 젊다는 뜻이겠지? 그럼 노래한 지 52년째인 나는 무대를 보면 설레는가? 아니지. 외려 어려운 숙제 거리 같다.

요사이 숱한 젊은이들의 경연을 보면 놀랍고 또 놀랍다. 몇 년 동안 연습생으로 살거나 꿈을 안고 달려와 기어코 마이크 앞에 선 순간! 일생일대의 기회라 여기는 그 무대에서 기를 쓰고 해낸

다. 참 대단하다. 음을 다루는 기술이 놀랍다. 그런데 음과 음 사이(글의 행간과 같은 틈새) 묻어나는, 말로 집어내기 힘든 거시기를 아는 젊은이는 없다. 기술에 마음이 가려져 현란한 장식음만 가득 찬다. 기술은 연마 습득 가능하지만 음 사이 공간에 실리는 감정은 그렇지 않다.

수영 배울 때도 선생님은 힘 빼라고 당부하지만 호흡 조절이 잘 안되고, 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천천히 지겹도록 되풀이되는 연습으로 호흡과 팔 젓기, 그리고 발차기의 박자가 맞는 순간 힘이 빠지면서 몸도 편안해진다. 이러나저러나 무엇이든 어려서 배우고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

노래도 혼자 흥얼대는 콧노래가 최고인 게 힘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잔뜩 힘주어 내지르면 노래는 풀썩 주저앉아 공명도 덜하다.

여성시대 편지 배달과 사람끼리 소통도 그렇지 않을까? 무얼 작정하면 시작부터 실패다. 그 사람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 공감할 때, 마치 95.9에 라디오를 맞추듯 잘 들리고 비로소 알게 되고,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다.

올 단풍은 이상하게 칙칙해 보인다. 어디까지나 우리 동네 정발산 둘레길 얘기다. 단풍빛의 농담도 동네마다 다르겠지. 어느 해인가 여의도 MBC 시절 출근길 여의도공원 단풍이 봄날의 꽃보다 화사했다. 나이 듦도 꽃보다 더 깊은 화려함일 수 있겠네…. 젊음보다 빛나는 중장년! 충분히 그렇겠네…. 고개를 끄덕였다.

10월의 최대 이벤트는 16일 하남시에서의 전국노래자랑 녹화였다. 새로운 MC, 김신영의 첫 녹화라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다. 신영에게 힘 빼고 욕심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긴장하고 떤 사람은 나였고, '참 좋다' 가사를 두 군데나 엉뚱하게 부르고야 말았으니, 이런 코미디가 있나? 이럴 수 있나? 무대가 두려워지면 정신이 나가고 백주대낮에 그 많은 관객들 얼굴이 다 보이고, 얘기하고 춤추는 분들이 바로 앞에서 움직이시니 집중이 흩어졌고 세상 어려운 무대였다는 걸 여성시대 당당이들 앞에서 고백한다. 무어라고 말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는데 TV 본 사람들은 따뜻한 감동이 있었다고 한다. 다행이다.



인생은 아름다워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연예인이 연예인을 만나면 어떨까? 같은 장르 혹은 장르가 달라도 함께 일한 적이 많은 경우엔 그냥 동료를 만나는 일상이 되고, 같은 장르여도 처음 만나거나 평소 만나기 힘든 다른 장르의 연예인을 보게 되면 인증사진을 남기는 것으로 반가움을 간직한다. 아무리 반가워도 연예인이 연예인에게 직접 사인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30여 년 연예인 생활을 한 나의 경우, 내 이름으로 받은 연예인 사인이 세 장이 되었다. 세 사람의 공통 장르는 배우. 하지만 배우가 특별한 장르라고 생각해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삼십 대 이후,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K 드라마, K 영화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다. 전에도 많은 배우를 만났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다. 하지만 최근 사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종이 한 장으로도 작품의 감동을 언제든 재소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지친 나의 일상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준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의 사인을 받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는 이병헌 배우.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 전작과는 다른 스타일의 털털하고 인간적인 연기로 너무도 큰 감동을 주었다. 그런데 마침 이병헌 배우가 내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물론 광고에 함께 출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병헌 배우는 TV 파트, 나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파트를 맡아 한 식구가 된 것이다. 회사 홍보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이 배우의 사인을 받았다. 사무실 내 책상 앞에 걸린 그의 사인을 보며 요즘도 드라마의 감동을 가끔 소환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여성시대 깜짝 초대석에 류승룡, 염정아 배우가 출연하게 되었다. 요즘 많은 사랑을 받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홍보차. 이왕이면 영화를 보고 손님을 맞이하면 프로그램 진행에도 도움이 될 듯하여 아내, 아이, 매니저까지 온 식구가 극장에 총출동했다. 하지만 극장 직관 전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아내가 환절기 알레르기로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아이도 밀린 숙제 때문에 볼까말까를 고민했고, 나와 백 이사 또한 주

초부터 지방 일정까지 소화하며 강행군이던 상황. 하지만 결국 영화를 보게 되었고, 두 시간 후 극장 문을 나서는 우리 네 사람의 마음은 하나같았다. '안 봤으면 후회할 뻔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내용 관련 얘기는 생략한다. 다만 색다른 형식, 탄탄한 시나리오,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최고의 우리 영화임은 내가 보증한다. 시종일관 얼마나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는지 엉덩이에 뿔 날 뻔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지금도 여성시대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두 배우를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떨렸다. 전날의 감동이 너무나 커서인지 그날도 영화 보는 것 같았다. 한 시간이 어찌 지나간 줄 모를 정도로 즐겁게 얘기를 나누었다.

이제 내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병헌 배우 사인 외에 두 개의 사인이 더 있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류승룡, 염정아.

살다가 뭘 어떡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이 올 때 그 사인을 보며 해답을 찾아가리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은 모두에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니까.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i-ONE 자산관리
당신이 원하던 자산관리 그 이상
i-ONE Bank 앱에서 경험해 보세요!
i-ONE 자산관리 바로가기
요즘 직장인들의 자산관리 i-ONE 자산관리
통합자산서비스
전 금융권 자산 통합 조회
자산 분석 리포트 제공
생활금융서비스
내 차 팔기 서비스
모바일 쿠폰 마켓
직장인특화서비스
신용등급·커리어관리
정부 지원금 찾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2473호(2022.05.11) 유효기간(2023.05.10)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 기업은행은 금품 ·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